

2019 수능대비 EBS 연계교재 고전시가 모음

신 ○ 산

강	수 록	작품명(작가)	비 고
1	수능특강(문학)	한거십팔곡(권호문)	
2	수능특강(문학)	농부가(이세보)	
3	수능특강(문학)	면앙정가(송순)	
4	수능특강(문학)	독락당(박인로)	
5	수능특강(문학)	일동장유가(김인겸)	
6	수능특강(문학)	만언사(안조원)	
7	수능특강(문학)	상사별곡	
8	수능특강(문학)	견여탄(정약용)	
9	수능특강(문학)	남당사	
10	수능특강(문학)	유산가	
11	수능완성	고공가(허전)	
12	수능완성	분천강호가(이숙량)	
13	수능완성	노계가(박인로)	
14	수능완성	병산육곡(권구)	
15	수능완성	사시사(허난설헌)	
16	수능특강(문학)	성산별곡(정철)	



제 1 강

閑居十八曲(한거십팔곡)

權好文(권호문)

1.

生平(평생)애 願(원)하느니 다만 忠孝(충효) 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금수) | 나 다라리아
마음애 하고저 하야 十載 遑遑¹⁾(십재황황) 하노라

평생에 원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 것이면 금수와 다르겠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년을 허둥대노라.

2.

計校²⁾(계교) 이르터니 功名(공명)이 느껴세라
負笈³⁾ 東南(부급 동남)하야 如恐不及⁴⁾(여공불급) 하느 뽐을
歲月(세월)이 물 흐르 듯하니 못 이룰가 하야라

견주어 살피다가 공명이 늦었구나.
스승을 찾으려도 이루기 어려움에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못 이룰까 하노라.

3.

비록 못 일워두 林泉(임천)이 도하나라
無心 魚鳥⁵⁾(무심어조)는 自閒閒(자한한) 하얏느니
早晚(조만)애 世事(세사) 닳고 너를 조처려 하노라

비록 못 이루어도 자연이 좋으니라.
욕심 없는 새와 고기 스스로 한가하니
늦거나 이르거나 세상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4.

江湖(강호)애 노자 하니 聖主(성주)를 버리레고
聖主(성주)를 섬기자 하니 所樂(소락)애 어기예라
호운자 岐路(기로)애 서서 갈 뒤 몰라 하노라

강호에서 놀자 하니 임금을 버리겠고
임금을 섬기려니 즐거움을 어길레라.
호올로 갈림길에 서 갈 곳 몰라 하노라.

5.

어지게 이러그러 이 몸이 었디 홀고
行道(행도)도 어렵고 隱處(은처)도 定(정)티 아낀다
언제야 이 뽐 決斷(결단)하야 從我所樂(종아소락) 하려노

어지러이 살아가니 이 몸을 어찌할까.
도 따르기도 어렵고 숨을 곳도 정하지 못해
언제야 이 뜻을 결단하여 즐기는 일 좇으려나.

1) 마음이 급해서 십 년을 허둥지둥함.

2) 서로 견주어 봄.

3) 책 상자를 지고 먼 곳의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러 감.

4) 어떤 일을 실행하지 못해 마음을 졸임.

5) 공명에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



6.

히려 히려 히되 이 뜯 못히여라
이 뜯 하면 至樂(지락)이 잇느니라
우웁다 엇그제 아니던 일을 뉘 올타 히던고

하려하려 하되 이 뜯을 못히여라.
이 뜯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습다, 엇그제 아니하던 일을 뉘가 옳다 하는가.

7.

말리 말리 히되 이 일 말기 어렵다
이 일 말면 一身(일신)이 閒暇(한가)히다
어지게 엇그제 히던 일이 다 윈 줄 알과라

말자말자 하였어도 이 일 말기 어려워라.
이 일 말면 내 몸이 한가하다
어찌리, 엇그제 하던 일 다 그른 줄 알겠구나.

8.

出(출)히면 致君 澤民¹⁾(치군택민)
處(처)히면 釣月 耕雲²⁾(조월경운)
明哲 君子(명철군자)는 이룰사 즐기느니
히물며 富貴(부귀) 危機(위기) | 라 貧賤居(빈천가)를 히오리라

나가면 임금 섬겨 백성을 빛나게 하고
돌아오면 달 아래 술 마시고 밭을 가네.
지혜로운 군자는 이러한 일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험하니 가난하게 사오리다.

9.

靑山(청산)이 碧溪(벽계) 臨(임)히고 溪上(계상)에 烟村(연촌)이라
草堂 心事(초당심사)를 白鷗(백구)근들 제 알라
竹窓 靜夜(죽창정야) 月明(월명)히 되 一張琴(일장금)이 잇느니라

청산이 물가에 있고 물 위에 안개 마을이라.
초당에서 지내는 마음 백구인들 제가 알까.
대살에 조용히 달 밝은데 거문고 하나 있어라.

10.

窮達 浮雲(궁달부운) 꺾치 보야 世事(세사) 이저 두고
好山 佳水(호산가수)의 오는 뜯을
猿鶴(원학)³⁾이 내 번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뢴실고

귀하고 천하고 뜯 구름이라 세상을 잊고
좋은 산 아름다운 물을 찾는 뜻은
원학이 내 벗이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까.

11.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竹庭 松檻(죽정송함)에 一點(일점) 塵(진)도 업스니
一張琴 萬軸書(일장금 만축서) 더욱 蕭灑(소쇄)히다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대숲 정원 솔 기둥에 한 점 티끌 없으니
한 대의 거문고 만권의 책이 더욱 깨끗하구나.

1) 임금을 섬기며 백성에게 은덕이 미치게 함.

2) 달빛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

3) 원숭이와 학은 풍요롭고 부귀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2.

霽月(제월)¹⁾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놀아 올라
十分 淸光(십분청광)이 碧溪中(벽계중)에 빗써거늘
어디 인는 물 일흔 굴며기는 나를 조차 오는다

비 맞은 달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흥건한 밝은 달빛 시냇가에 비치는데
어딘가 무리 잃은 갈매기 나를 따라 오는구나.

13.

날이 저물거늘 々외야 홀 닐 업서
松關(송관)을 닫고 月下(월하)에 누어시니
世上(세상)에 쫓글 ㅁ음이 一毫末(일호말)도 업다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 털끝만큼 없어라.

14.

月色 溪聲(월색 계성) 어섯겨 虛停(허정)의 오나눌
月色(월색)을 眼屬(안속)하고 溪聲(계성)을 耳屬(이속)히
드르며 보며 하니 一體淸明(일체청명) 해야라

달빛 냇물 한데 섞여 정자로 오르거늘
달빛은 눈에 뵈고, 물소리는 귀로 들어
들으며 보며 하니 내 몸이 맑고 깨끗하여라.

15.

酒色(주색) 좇자 하니 騷人²⁾(소인)의 일 아니고
富貴(부귀) 求(구)차 하니 뜻디 아니 가네
두어라 漁牧(어목)이 되오야 寂寞濱(적막빈)에 놀자

주색을 좇자 하니 문사의 일 아니고
부귀를 구하자 하니 뜻이 아니 가네.
두어라 어부 목동으로 고요한 물가에서 늙자꾸나.

16.

行藏有道³⁾(행장유도)하니 브리면 구테 구하랴
山之南 水之北⁴⁾(산지남 수지북) 병 들고 늘근 날를
뉘라셔 懷寶迷邦⁵⁾(회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일에서 떠나니 도가 있고 버렸는데 굳이 구하랴.
산 남쪽 물 북쪽의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셔 나라 구할 보물 있다 오라 말라 하는가.

17.

聖賢(성현)의 가신 길히 萬古(만고)에 한가지라
隱(은)커나 見(견)커나 道(도)ㅣ 언디 다르리
一道(일도)ㅣ 오 다르디 아니커니 아ㅁ된들 엇더리

성현이 가신 길은 만고에 한가지라.
숨었거나 나아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도라 다르지 앎으니 어디인들 어떠리.

1) 비에 씻긴 달

2) 시인. 騷人墨客

3) 세상에 나감과 물러감에도 도가 있음.

4) 한양 땅.

5) 어지러운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간직함.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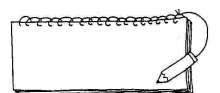
어기(漁磯)에 비 개거늘 綠苔(녹태)로 독글 사마
 고기를 헤이고 낚글 뜯을 어이 흐리
 纖月(섬월)이 銀鉤(은구) | 되어 碧溪心(벽계심)에 잠겼다

남시터에 비 개거늘 이끼로 돛을 삼아
 고기를 헤아리고 낚을 뜯을 어이하리.
 초승달 낚시가 되어 푸른 물에 잠겼구나.

19.

江干(강간)에 누워서 江水(강수) 보느 빠든
 逝者如斯¹⁾(서지여사)하니 百歲(백세) 긴들 먼근이로
 十年前(십년전) 塵世 一念(진세일념)이 어름 녹 듯혼다

강둑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보니
 흐르는 물 나와 같아 백세인들 길겠는가.
 십년 전 세상에 대한 욕심 얼음 녹듯 하는구나.



1) 가는 것이 저와 같으니



제 2 강

農夫歌(농부가)

李世輔(이세보)

－ 風雅 56

정월의 농기 닦고 이월의 밭을 간다
장정은 들의 놀고 노약은 집의 잇서
지금의 게으른 자부 신칙한다

#01

정월에 농기(農器) 닦고 이월에 밭을 간다.
장정은 들에 들고 노약(老弱)은 집에 있어
지금의 게으른 자부(子婦)¹⁾ 신칙(申飭)²⁾한다.

－ 風雅 57

춘일리 직양흐니 창경이 우짖는다
뒤 피의 풀을 썩고 앞 논은 번경이라
아이야 들점심 너여 올 제 술 잊지 마라

#02

춘일재양(春日載陽)하고 유명창경(有鳴倉庚)³⁾이라.
뒷산에 풀을 깎고 앞 논은 번경(反耕)⁴⁾이라.
아이야, 들 점심 내어올 제 술 잊지 마라.

－ 風雅 58

좌수의 잡은 춘광 우수로 옮겨 너여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의 이동흐니
아마도 성세낙민은 이뿐인가

#03

좌수(左手)에 잡은 춘광(春光) 우수(右手)로 옮겨 내어
농부가(農夫歌) 흥에 겨워 수답(水畓)⁵⁾에 이종(移種)하니
아마도 성세(聖世)⁶⁾ 낙민(樂民)은 이뿐인가 [하노라.]

－ 風雅 59

초운 직운 풀 밭 적의 저 농부 수고한다
스립 쓰고 흙의 들고 상평 하평 분주하다
아마도 실시하면 일년 싱이 허스인가

#04

초운(初耘) 재운(再耘)⁷⁾ 풀 밭 적에 저 농부 수고한다.
사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上坪) 하평(下坪)⁸⁾ 분주하다.
아마도 실시(失時)⁹⁾하면 일 년 생애(生涯) 허사로다.

1) 며느리

2)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3) 『시경(試經)』, 「빈풍칠월(邠風七月)」의 한 구절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 봄날 햇볕 따뜻해져서, 피꼬리 울어대면 아가씨는 광주리를 들고 저 오솔길을 따라 가며 부드러운 뽕잎을 따네.

4) 간 논을 다시 갈아 뒤집는 일.

5) 논

6) 어진 임금의 다스리는 세상

7) 논밭의 김을 처음 매고 다시 맴.

8) 윗땅, 아랫땅

9) 때를 놓침.



－ 風雅 60

근고¹⁾하여 심은 오곡²⁾ 날 가무려 근심터니
유연³⁾작운⁴⁾ 오신 비의 꺾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도는 성화⁵⁾신가

－ 風雅 61

빅노⁶⁾ 상강⁷⁾ 다닷거든 낮 가려 손의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⁸⁾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⁹⁾한 농부야 일러 무삼

－ 風雅 62

일년을 슈고¹⁰⁾하여 백곡이 풍등¹¹⁾하니
우순풍조¹²⁾ 아니런들 함포고복¹³⁾ 어이 헐리
아마도 국태평¹⁴⁾ 민안락¹⁵⁾은 금세¹⁶⁾신가

－ 風雅 63

그딴¹⁷⁾ 추수¹⁸⁾ 얼마 험고 닉¹⁹⁾ 농스 지은 거슨
토세²⁰⁾ 신역²¹⁾ 바친 후의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하고 나면 과동²²⁾이 어려

－ 風雅 64

그딴²³⁾ 농스 적을 적의 닉²⁴⁾ 추순들 변변할까
저 건너 박부자²⁵⁾ 집의 빛이나 다 갚을는지
아마도 가난한 스름은 가을도 봄인가

#05

근고(勤苦)¹⁾하여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무려 근심터니
유연(油然) 작운(作雲)²⁾ 오신 비에 꺾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³⁾는 성화(聖化)⁴⁾신가 [하노라.]

#06

백로(白露) 상강(霜降)⁵⁾ 다다르면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百穀)이 다 익었다.
지금에 실시(失時)한 농부야 일러 무엇[하리.]

#07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豐登)⁶⁾하니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⁷⁾ 어이하리.
아마도 국태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⁸⁾은
금세(今世)신가 [하노라.]

#08

그대 추수(秋收) 얼마 했나, 내 농사지은 것은
토세(土稅)⁹⁾와 신역(身役)¹⁰⁾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하고 나면 과동(過冬)¹¹⁾이 어려[울새.]

#09

그대 농사 적을 적에 내 추수(秋收)인들 변변할까
저 건너 박부자(朴富者) 집 빛이야 다 갚을는지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도 봄이렸다.

1) 마음과 몸을 다하며 애씀.

2)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며 구름이 만들어짐.

3) 때를 맞추어 알맞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

4) 임금의 덕행으로써 사람이나 백성을 교화함.

5) 24절기

6) 농사를 지은 것이 아주 잘됨.

7)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8)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히 즐김.

9) 땅에 물리는 세금.

10)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軍役)과 부역(負役)

11) 겨울나기



－ 風雅 65

철업는 빅성드라 가난을 설다 마라
절용 절검 슈신희면 성세 청복 되리로다

아마도 지독을 못히면 가택이 불안

－ 風雅 66

복이 스름을 짜르고 스름은 복 못 짜리
헝날리 닉실 썩의 다 각각 분텟이라
아마도 안빈낙도히면 쫓치 잇서

－ 風雅 67

흥진비리도 잇고 고진감늬도 잇다
도모지 헤아리면 텃지간 영허지니라
아마도 슈신희 덩긔히여 이덕티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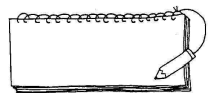
철업는 백성들아 가난을 설다 마라
절용(節用) 절검(節儉)¹⁾ 슈신희(修身)²⁾하며
성세(聖世) 청복(淸福)³⁾ 되리로다.
아마도 지족(知足)⁴⁾을 못히면 가택(家宅)⁵⁾이 불안[하리.]

#11

복(福)이 사람을 따르지, 사람은 복(福)을 못 따르니
하늘이 내실 때에 각각 분정(分定)⁶⁾이라
아마도 안빈낙도(安貧樂道)⁷⁾하면 끝이 있으[리라.]

#12

흥진비래(興盡悲來)⁸⁾도 있고, 고진감래(苦盡甘來)⁹⁾도 있다.
도무지 헤아리면 천지간(天地間) 영허(盈虛)¹⁰⁾지리.
아마도 슈신희(修身) 정기(正己)¹¹⁾하여
이대(理待)¹²⁾ 태왕(泰旺)¹³⁾ [하리라.]



- 1) 아껴 쓰고 검소함.
- 2)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음.
- 3) 좋은 복.
- 4)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앎.
- 5) 살림하는 집.
- 6) 분수가 나뉘어짐.
- 7)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 8)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옴.
- 9)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 10) 차거나 이지러짐.
- 11) 몸을 바르게 함.
- 12) 다스리고 기다림.
- 13) 태운(泰運)과 왕운(旺運), 태운은 걱정이 없고 평안한 운수, 왕운은 왕성한 운수.



제 3 강

면앙정가(俛仰亭歌)

송 순(宋純)

无等山(무등산) 한 활기 피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세쳐 와 霽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닐곱 구비 흠뻑 움쳐 뜨득뜨득 버렸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굵디든 늘근 놓이
 선증을 갓 씌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회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식니
 구름 탄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정자) 앞 너른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넘쳐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 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 썰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들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리곰 좇니는뇨
 너른 길 밧기뇨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식즌 거슨 피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 눈 양하야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섰난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사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누리거니 長空(장공)의 썬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무등산 한 줄기 산 동쪽에 뻗어 있어,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 하고 있나.
 일곱 굽이 한데 움츠려 무더기로 벌렸으니
 가운데 굽이에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넓은 바위 위에 솔 대나무 헤치고,
 정자를 세웠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을 흘러 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지 말던지 푸르거든 희디 말던지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려하나,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처럼 펼쳤으니
 어지러운 기러기는 뉘와 정을 통하는지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어지락
 갈대꽃을 사이 두고 울면서 쫓는 겐가.
 넓은 길의 밖이요, 긴 하늘의 아래에서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이 난 양하야
 하늘도 두려워 앓고 우뚝이 서 있는 게
 추월산을 머리 삼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렸으니
 가깝고 먼 푸른 언덕에 머문 것이 많고 많구나.
 흰 구름 뿌연 안개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라.
 수 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처럼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가서
 넓은 들로 건너가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썩리난다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그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鸝(황앵) 嬌態(교태)겨워 흐는고야
나모새 즈즈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 | 로다
黃雲(황운)은 쏘엇디 萬頃(만경)의 퍼겨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와 브니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뭇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하야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릇세라
乾坤(건곤)도 가음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하고 들고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고츠란 뉘 쏘려노
아침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이라 有餘(유여)하랴
이 피히 안자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믇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쉴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라
다만 흐 靑藜杖(청려장)이 다 드디여 가노미라
술이 익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늑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흥가하다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다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굼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를 뿌리누나.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버들에서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 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지어 나무 그늘 한창일 때
백척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수면에서 서늘한 바람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가 걸힌 후에 산 빛이 비단이로다.
황금 들판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다.
어부는 흥에 겨워 달을 따라 피리 부네.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가 대단하여 얼음 눈으로 꾸며 내니,
옥으로 지은 궁궐 은으로 치장한 산이
눈 아래 펼쳐졌구나.
온 세상이 풍성하다. 가는 곳마다 아름답도다.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니,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일랑 언제 낚고,
사립문은 뉘 닫으며 떨어진 꽃 뉘가 쏘까.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 싫겠는가.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을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길이나 전하리라.
다만 한 지팡이만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거니 벗이야 없겠는가.
불며, 타며, 켜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굽히락 젖히락
을으락 파람하락 마음 놓고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희황 때를 모르지만 이 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떻든지 이 몸이 신선이로다.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 이태백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끝없는 정과 회포 이보다 더할 소냐.
이 몸이 이러함도 또한 임금 은혜이로다.



제 4 강

獨樂堂(독락당)

朴仁老(박인로)

①

紫玉山(자옥산)¹⁾ 名勝地(명승지)에
獨樂堂(독락당)이²⁾ 蕭灑(소려)³⁾함을 들린 디 오래로되
이 몸이 武夫(무부)⁴⁾로서 海邊事(해변사)⁵⁾ | 孔棘(공극)⁶⁾거늘
一片丹心(일편단심)에 奮義(분의)⁷⁾를 못내 하야
金鎗鐵馬(금창철마)⁸⁾로 餘暇(여가) 업시 奔走(분주)터가
中心景仰(중심경앙)⁹⁾이 白首(백수)¹⁰⁾에 더욱 깊히
竹杖芒鞋(죽장망혜)¹¹⁾로 오날사 츠자 오니
峯巒(봉만)¹²⁾은 秀麗(수려)하야 武夷山(무이산)¹³⁾이 되어 있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¹⁴⁾하야 後伊川(후이천)¹⁵⁾이 되었느다
이러한 名區(명구)¹⁶⁾에 임지 어이 업도련고¹⁷⁾

자옥산 명승지에
독락당이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으로 바다 일이 급박하여
일편단심 분의를 떨치어 내
금창 철마로 여가 없이 분주타가
마음속에 사모하다 흰 머리에 더욱 깊어
죽장망혜로 오늘에야 찾아오니
봉우리 수려하여 무이산이 되어 있고
유수는 휘감아서 후이천이 되었구나.
이러한 경관에 임자 어이 없듯련고.

②

一千年(일천년) 新羅(신라)와 五百載(오백재) 高麗(고려)에
賢人(현인) 君子(군자)들이 만히도 지닌 마는
천간지비(天慳地秘)¹⁸⁾하야 我先生(아선생)¹⁹⁾씨 기치도다
物各有主(물각여주)²⁰⁾ | 어든
드토리 이실소냐

일천년 신라와 오백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지만은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내 선생을 남기었다.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다한들
다들 이 있을 소냐.

- 1) 현재 경주에 있는 산 이름.
- 2) 이연적이 머물며 제자를 가르치던 집채 이름.
- 3) 맑고 깨끗함.
- 4) 무인, 군인.
- 5) 바다의 일, 여기서는 작가가 수군(水軍)에 복무할 때를 일컬음.
- 6) 대단히 급박함.
- 7) 충의를 떨침.
- 8) 금으로 된 창과 쇠로 된 말, 곧 좋은 무기.
- 9) 마음속으로 (이연적을) 깊이 사모함.
- 10) 흰 머리
- 11)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 12) 꼭대기가 뽕뽕뽕하게 솟은 산봉우리.
- 13) 송나라 학자 주희가 살았던 산.
- 14) 휘감아 둘.
- 15) 송나라 학자 정이가 살던 곳이 이천이었기에, 조선의 이연적이 살고 있는 이천을 후이천이라 함.
- 16) 산수가 좋아 널리 이름난 고장.
- 17) 이연적이 세상을 떠났기에 임자가 없다고 함.
- 18)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김.
- 19) 이연적을 가리킴.
- 20) 사물이 다 주인이 있음.



靑蘿(청라)¹⁾를 헤쳐드러 獨樂堂(독락당)을 여러넉니
幽閑(유한)²⁾ 景致(경치)는 견훤디 뇌야 업닌

청라를 헤쳐 들어 독락당을 열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3]

千竿脩竹(천간수죽)³⁾은 碧溪(벽계)조차 둘러잇고
萬卷書冊(만권서책)은 四壁(사벽)의 사허시니
顏曾(안회)⁴⁾이 在左(재좌) 흐고 游夏(유하)⁵⁾는 在右(재우) 흐듯
尙友千古(상우천고)⁶⁾ 흐며 吟詠(음영)을 일을 삼아
閒中靜裏(한중정리)⁷⁾에
潛思自得(잠사자득)⁸⁾ 흐야
獨樂(독락) 이 일홈 稱情(칭정)⁹⁾ 흐 줄 기 뉘 알리.
司馬溫公(사마온공)¹⁰⁾ 獨樂園(독락원)이 아무리 조타 흐들
其間眞樂(기간진락)¹¹⁾ 이야 이 獨樂(독락)에 더로손가

무성한 대숲은 벽계 좇아 둘러 있고
만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안증은 좌에 있고 유하는 우에 있는 듯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로 일을 삼아
한가하여 고요한 데
깊이 생각하기를 혼자 즐겨 하시었다
독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은 줄 그 뉘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간 즐거움이 이 독락에 더할 손가.

[4]

尋眞(심진)¹²⁾을 못니 흐야 養眞菴(양진암)¹³⁾의 도라 드러
臨風靜看(임풍정간)¹⁴⁾ 흐니 너 뜻도 瑩然(형연)¹⁵⁾ 흐다
退溪先生(퇴계선생) 手筆(수필)이 眞得(진득)인 줄 알 리로다
觀魚臺(관어대)¹⁶⁾ 내려오니 짙은 덧흔 盤石(반석)¹⁷⁾의
扶屨痕(장구흔)¹⁸⁾이 보이느닷
手栽長松(수재장송)¹⁹⁾은 뱃뱃칠 찍여시니
依然物色(의연물색)²⁰⁾이 기 더욱 반가울사

신선을 못내 구해 양진암에 돌아들어
좋은 경치 찾아보는 내 뜻도 아름답다.
퇴계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을 알 리로다
관어대 내려오니 깔린 듯한 반석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자국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소나무는 옛 빛을 띠었으니
옛 그대로 물색이 그 더욱 반가울사.

- 1) 푸른 담쟁이덩굴
- 2) 조용하고 그윽함.
- 3) 몹시 우거진 대나무 숲.
- 4) 공자의 제자인 안회와 증삼.
- 5) 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
- 6) 천 년 전의 옛 벗을 숭상함, 여기서 옛 벗은 유학 경전.
- 7)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 8) 깊이 생각하여 혼자 깨달음.
- 9) 뜻에 맞춤.
- 10) 북송의 재상이었던 사마광.
- 11) 그간의 즐거움.
- 12) 진리(신선 세계)를 찾음.
- 13) 이연적이 후학을 가르치던 집채.
- 14) 경치를 고요히 바라봄.
- 15) 맑고 아름다운 모양.
- 16)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높은 언덕.
- 17) 넓고 평평한 바위.
- 18) 지팡이와 신발 자국.
- 19) 손수 심은 소나무.
- 20) 옛날과 다름이 없는 경치.



[5]

神淸氣爽(신청기상)¹⁾ 햏야 芝蘭室(지란실)²⁾에 든 듯 햏다
 多少古跡(다소고적)³⁾을 보며 문득 싱각햏니
 層巖絶壁(층암절벽)은 雲母屏(운모병)⁴⁾이 절로 되야
 龍眠妙手(용면묘수)⁵⁾로 그린듯시 버러 잇고
 百尺澄潭(백척징담)⁶⁾에 天光雲影(천광운영)⁷⁾이 얼희여 줌겨시니
 光風霽月(광풍제월)⁸⁾이 부는 듯 브식는 듯
 鳶飛魚躍(연비어약)⁹⁾을 말업슨 벼을 삼아
 沈潛翫索(침잠완색)¹⁰⁾ 햏야 聖賢事業(성현사업)¹¹⁾ 햏시뵈다
 淸溪(청계)를 빗기 건너 釣磯(조기)¹²⁾도 宛然(완연)¹³⁾ 햏사
 문노라 白鷗(백구)들아 네 닐을 아늑산다
 嚴子陵(엄자릉)¹⁴⁾이 어늑 히에 漢室(한실)¹⁵⁾로 가단 말고
 苔深磯上(태심기상)¹⁶⁾에 暮煙(묘연)¹⁷⁾만 줌겨서라

마음이 시원하여 향기로운 방에 든 듯.
 옛 자취를 보며 문득 생각하니
 층암절벽은 운모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인 듯 그림처럼 펼쳐 잇고
 깊은 못에 하늘 구름 어리어 잠겼으니
 비온 후 바람 달빛 부는 듯 비추는 듯
 나는 술개 뛰는 고기 말 없는 벼을 삼아
 정성스레 책을 읽어 성현 사업 본받도다.
 맑을 물을 비껴 건너 낚시터도 완연한데
 문노라 백구들아, 옛일을 알고 있나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실로 갔단 말고
 이끼 낀 모래톱이 저녁 안개 잠겼어라.

[6]

春服(춘복)을 식로 입고 詠歸臺(영귀대)¹⁸⁾에 올라오니
 麗景(여경)은 古今(고금) 업서 淸興(청흥)¹⁹⁾이 절로 하니
 風乎詠而歸(풍호영이귀)²⁰⁾를 오늘 다시 본 듯 햏다
 臺下蓮塘(대하연당)²¹⁾의 細雨(세우) 잠썸 지너지니
 碧玉(벽옥)긔 햏 너분 님헤 햏치느니 明珠(명주)²²⁾로다
 이러햏 淸景(청경)²³⁾을 보암 즉도 햏다마는
 濂溪(염계)²⁴⁾ 가신 後(후)에 몇뵈히를 디닌 게요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운 경치 고금 없어 맑은 흥이 절로 이니
 바람 쐬고 시 읊기가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언덕 아래 연꽃 연못 세우 잠깐 지나가니
 벽옥 같은 넓은 앞에 흩어지니 구슬이라.
 이러한 경치를 본 즉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뵈 해를 지낸 게요.

- 1) 정신이 맑고 속이 시원함.
- 2)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자라는 땅, 곧 선량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
- 3) 수많은 옛 자취.
- 4) 운모석으로 된 바위 병풍.
- 5) 송나라 명화가인 용면거사 이공린의 뛰어난 그림 솜씨.
- 6) 맑은 물이 가득한 매우 깊은 못.
- 7) 맑게 갠 하늘.
- 8) 비온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
- 9)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오름.
- 10) 마음을 가라앉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음. 곧 정성을 다하여 책을 읽음.
- 11) 성현이 하던 일. 곧 학문에 힘쓰며 도덕적으로 살던 일.
- 12) 낚시터.
- 13)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함.
- 14) 중국 후한 때 은사(隱士)였던 엄광.
- 15) 한나라 왕실.
- 16) 이끼가 자란 물가 모래톱 위.
- 17) 석양 무렵의 안개.
- 18) 시문을 즐겨 외우던 언덕.
- 19) 맑은 흥과 운치.
- 20) 바람을 쐬고 시를 읊고 돌아오던 일.
- 21) 높은 언덕 아래에 있는 연꽃 핀 연못.
- 22) 빛나는 구슬, 여기서는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 23) 아름다운 경치.
- 24) 송나라 주돈이의 호.



依舊清香(의구청향)¹⁾이 다몬 혼자 남아고야
 紫煙(자연)²⁾이 빗긴 아래 瀑布(폭포)를 멀리보니
 丹崖(단애)³⁾ 노푼 굻히 긴늑히 걸려는듯
 香爐峯(향로봉)⁴⁾ 그 어디오 廬山(여산)⁵⁾이 예뻐던가
 澄心臺(정심대)⁶⁾ 구어보니 鄙吝(비린)⁷⁾ 텃 胸襟⁸⁾(흉금)이
 새로운 듯하다마는
 寂寞空臺(적막공대)⁹⁾에 외로이 안자시니
 風淸鏡面(풍청경면)¹⁰⁾의 山影(산영)만 잠겨있고
 綠樹陰中(녹수음중)¹¹⁾에 원갓식 슬피운다
 徘徊思憶(배회사억)¹²⁾ 하며 眞跡(진적)¹³⁾을 다 차즈니
 濯纓臺(탁영대)¹⁴⁾ 淵泉(연천)¹⁵⁾은 古今(고금)업시 말다마는
 末路紅塵(말로풍진)¹⁶⁾에 사람마다 紛競(분경)¹⁷⁾ 커든
 이리 조흔 淸潭(청담)¹⁸⁾에 濯纓(탁영)홀 줄 그 뉘 알리

맑은 옛 향기만 다만 혼자 남았구나.
 보라 안개 비긴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바위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렸는 듯
 향로봉이 어디인가, 여산이 여기인가
 정심대 굽어보니 더럽혀진 가슴 속이
 새로운 듯하지만
 적막한 언덕 위에 외로이 앉았으니
 바람 잦은 물결 위로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갓 새 슬피 운다.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 자취를 다 찾으니
 탁영대 깊은 못은 옛날처럼 맑다마는
 어지러운 티끌 속에 사람마다 다투거니
 이리 맑은 못에 때 씻을 줄 그 뉘 알리.

[7]

獅子巖(사자암) 노피 올라 道德山(도덕산)을 바라보니
 玉蘊含輝(옥운함휘)¹⁹⁾는 어제론 듯하다마는
 鳳去山空(봉거산공)²⁰⁾ 하니 杜鵑(두견)만 나죄운다
 桃花洞(도화동) 느린 물리
 不畱晝夜(불사주야)²¹⁾ 하야 落花(낙화)조차 흘러오니
 天台(천태)²²⁾ 긴가 武陵(무릉)²³⁾인가 이 싸히 어딘게오
 仙蹤(선종)²⁴⁾이 아득하니 아모딘 줄 모르로다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구슬에 쌓인 빛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봉황 떠난 빈 산중에 두견만 낮에 운다.
 도화동 흐른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흘러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 게오.
 신선 자취 아득하니 아무덴 줄 모를레라.

- 1) 옛날과 다름없는 맑은 향기.
- 2) 햇빛에 비친 보랏빛 안개.
- 3) 붉은 절벽.
- 4) 금강산의 제일봉.
- 5) 중국 장시에 있는 명산.
- 6) 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 7) 더럽고 인색함.
- 8) 가슴 속.
- 9) 조용한 빈 언덕.
- 10) 바람이 없어 물결이 거울처럼 잔잔함.
- 11) 푸른 나무 그늘.
- 12) 어슬렁거리며 생각함.
- 13) 실제 남은 자취.
- 14) 갓끈을 씻는 물가 언덕.
- 15) 깊은 연못.
- 16) 말세의 티끌 같은 세상.
- 17) 어지럽게 싸움.
- 18) 맑은 연못.
- 19) 구슬에 쌓였으나 맑은 빛을 품고 있음. 이언적의 학덕.
- 20) 봉황이 날아가 산이 비어 있음. 곧 이언적의 죽음을 뜻함.
- 21) 밤낮으로 쉬지 않음.
- 22) 중국 절강의 산.
- 23) 무릉도원.
- 24) 신선들이 놀던 자취.



仁者((인자)도 아닌 몸이 무슨 理(이)를 알리마는
 樂山忘歸(요산망귀)¹⁾ ㅎ야
 奇巖(기암)을 다시 비겨
 川原遠近(천원원근)²⁾에 景致(경치)를 살펴보니
 萬紫千紅(만자천홍)³⁾은 비단 빗치 되어 있고
 衆卉群芳(중훼군방)⁴⁾은 谷風(곡풍)에 놀러오고
 山寺鍾聲(산사종성)⁵⁾은 구름 밖기 들리누나
 이러흔 形勝(형승)⁶⁾을 范希文(범희문)⁷⁾의 文筆(문필)인들
 다 서넉기 쉬울넉가
 滿眼風景(만안풍경)⁸⁾이 客興(객흥)을 도오논듯
 任意逍遙(임의소요)⁹⁾ ㅎ며 짐즉 더디 도라오니
 舉目西岑(거목서잠)¹⁰⁾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 리마는
 산이 좋아 다시금 돌아갈 줄 모르더니
 기이한 바위에 기대어 의지하여
 멀고도 가까운 시내와 들판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여러 꽃은 비단 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는 계곡 바람에 실려 오고
 산속 절 종소리는 구름 밖에 들리누나.
 이러한 풍경을 범희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기 쉬울넉가.
 눈 가득 풍경이 객흥을 돋우는 듯
 정처 없이 거닐다가 짐짓 더디 돌아오니
 눈을 들어 서쪽 보니 석양이 거의로다.

[8]

獨樂堂(독락당) 고쳐 올라 左右(좌우)를 살펴보니
 先生(선생)¹¹⁾ 風彩(풍채)을 親(친)히 만나 뵈옵논듯
 羹牆(갱장)¹²⁾의 儼然(엄연)¹³⁾ ㅎ야
 俯仰歎息(부양탄식)¹⁴⁾ ㅎ며
 當時(당시)에 ㅎ시던 날 다시금 思想(사상) ㅎ니
 明牕靜几(명창정계)¹⁵⁾에 世慮(세려)¹⁶⁾을 이즈시고
 聖賢書(성현서)¹⁷⁾의 着意(착의)¹⁸⁾ ㅎ야 功效(공효)¹⁹⁾를 일위넉여
 繼往開來(계왕개래)²⁰⁾ ㅎ야
 吾道(오도)²¹⁾를 발키시니

독락당 고쳐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 풍채를 친히 만나 뵈옵는 듯
 의젓한 언행을 자나 깨나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땅을 보며 탄식하며
 당시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 책상 앉아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현서에 뜻을 두고 공부를 이뤄내어
 옛 성현을 계승하여 후학을 이끄시어
 우리 도를 밝히시니

- 1) 산을 좋아하여 돌아갈 곳을 모름.
- 2) 멀고 가까운 시내와 들판.
- 3) 갖가지 아름다운 색의 꽃들.
- 4) 수없이 많은 꽃들의 향기.
- 5) 절의 종소리.
- 6) 뛰어난 지세나 풍경
- 7) 송나라 문필가인 범중엄의 자.
- 8) 눈에 가득 차는 아름다운 경치.
- 9) 정해진 데 없이 돌아다님.
- 10) 눈을 들어 서쪽을 바라봄
- 11) 이언적.
- 12) 자나 깨나 눈에 선함.
- 13) 언행이 의젓하고 집중음.
- 14) 높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탄식함.
- 15) 밝은 창과 고요한 책상.
- 16) 세상에 대한 근심.
- 17) 성현의 언행을 기록한 책.
- 18)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둠.
- 19) 공을 드린 보람
- 20) 繼往聖開來學.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여 다가오는 후학의 길을 열어줌.
- 21) 우리들의 도, 여기서는 유학.



吾東方 樂只君子(오동방 낙지군자)¹⁾는 다몬 인가 너기로라
 ㅎ믈며 孝悌(효제)²⁾를 本(본)을 삼고 忠誠(충성)을 베퍼너여
 聖朝(성조)³⁾의 나아들러 稷契(직설)⁴⁾의 몸이 되야
 唐虞盛時(당우성시)⁵⁾를 일월가 바라더가
 時運(시운)⁶⁾이 不幸(불행)ㅎ야 忠賢(충현)⁷⁾을 遠斥(원척)⁸⁾ㅎ니
 듯느니 보느니 深山窮谷(심산궁곡)⁹⁾엔들
 뉘 아니 悲感(비감)¹⁰⁾ㅎ리
 七年長沙(칠년장사)¹¹⁾이 不見天日(불견천일)¹²⁾ㅎ고
 閉門深省(폐문심성)¹³⁾ㅎ샤 道德(도덕)만 닷그시니
 邪不勝正(사불승정)¹⁴⁾이라
 公論(공론)이 절로 이리
 尊崇道德(존숭도덕)¹⁵⁾을 사람마다 ㅎ 줄 아라
 江界(강계)¹⁶⁾는 謫所(적소)¹⁷⁾로디 遺化(유화)¹⁸⁾를 못느 이저
 窮巷絕域(궁항절역)¹⁹⁾의 祠宇(사우)²⁰⁾쫓차 서워시니
 士林趨仰(사림추앙)²¹⁾이야 더욱 닐러 무엇ㅎ리

우리나라 군자는 다만 인가 여기로다.
 하물며 효제를 본을 삼고 충성을 베풀내어
 조정에 나아 들어 직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 시대 이룰까 바라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이 쫓겨나니
 듣는 이 보는 이 깊은 산 골짜기인들
 뉘 아니 슬퍼하리.
 칠년 귀양 밝은 하늘 보지 못할 지라
 문 닫고 돌아보아 도덕만 닦으시니
 그림이 옳음을 이기지 못하여
 공론도 절로 일어
 도덕을 숭상하기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적소로되 끼친 교화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도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9

紫玉泉石(자옥천석)²²⁾우희 書院(서원)을 디어두고
 濟濟青襟(제제청금)²³⁾이 絃誦聲(현송성)²⁴⁾을 이어시니
 濂洛群賢(염락군현)²⁵⁾이 이 짜히 피왓는닷

자옥산 풍경 위에 서원을 지어 두고
 선비들의 거문고 글 읽는 소리 이어지니
 어진 많은 선비들이 이 땅에 모였는 듯

- 1)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자들.
- 2)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 3) 성군이 다스리는 조정.
- 4) 순 임금 대의 명신.
- 5) 요순의 태평시대.
- 6) 당시의 운세.
- 7)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
- 8) 멀리 내쫓음.
- 9)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 10) 슬픈 느낌.
- 11) 중국 한나라 충신 가의가 곧은 말을 했다가 장사 땅에서 7년간 귀양을 했다는 고사.
- 12) 하늘의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함..
- 13) 문을 굳게 닫고 반성함.
- 14) 그른 것이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함.
- 15) 도덕을 높이 받들어 숭배함.
- 16) 평안도 지명.
- 17) 귀양지.
- 18) 끼친 교화.
- 19) 궁벽한 시골 고장.
- 20) 사당, 여기서는 경현 서원.
- 21) 선비들이 나아가 우러러 받들.
- 22) 자옥산의 풍경.
- 23) 재주가 많은 선비들.
- 24) 거문고와 글 읽는 소리.
- 25) 송나라 주돈이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염계와 정자 형제가 후학들을 길러내던 낙양.



求仁堂(구인당) 도라 올라 體仁廟(체인묘)¹⁾도 嚴肅(엄숙)할사
 千秋血食(천추혈식)²⁾이 偶然(우연) 아닌 일이로다
 追崇尊敬(추송존경)³⁾을 홀소록 못너하야
 文廟從享(문묘종향)⁴⁾이 그 더욱 盛事(성사)로다
 吾東方(오동방)⁵⁾ 文憲(문헌)⁶⁾이 漢唐宋(한당송)에 비기로되
 紫陽雲谷(자양운곡)⁷⁾도 어즈버 여기로다
 洗心臺(세심대) 느린 물에 德澤(덕택)이 이어 흘러
 龍湫(용추)⁸⁾ 감흔 곳에 神物(신물)⁹⁾조차 잠겨시니
 天工造化(천공조화)¹⁰⁾ | 그 더욱 奇異(기이)코야
 無邊眞景(무변진경)¹¹⁾을 다 좇기 어려울식
 樂而忘返(낙이망반)¹²⁾하야 旬月(순월)¹³⁾을 淹留(엄유)¹⁴⁾하며
 固陋(고루)¹⁵⁾흔 이 몸애 誠敬(성경)¹⁶⁾을 넓이하야
 先生文集(선생문집)을 仔細(자세)히 살펴보니
 千言萬語(천어만언)¹⁷⁾ 다 聖賢(성현)의 말삼이라
 道脉工程(도맥공정)¹⁸⁾이 日月(일월)갓치 불가시니
 어드운 밤 길히 明燭(명촉)¹⁹⁾잡고 엔덜하다

구인당 돌아 올라 체인묘도 엄숙할사
 쉽 없는 제향도 우연 아닌 일이로다.
 우러러 모심도 할수록 못내 하여
 문묘에 제향함이 그 더욱 성사로다.
 우리나라 문화가 한당송에 비기로다.
 자양 운곡도 어즈버 여기로다
 세심대 내린 물이 덕택에 이어 흘러
 용추 깊은 곳에 신물조차 잠겼으니
 조물주의 조화가 그 더욱 기이하다.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울 새
 즐기느라 돌아옴을 한 달 거웃 잊어버려
 고루한 이 몸애 정성을 널리 하여
 선생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만 마디 모두가 다 성현의 말삼이라.
 공부하는 과정이 일월같이 밝았으니
 어두운 밤길에 촛불 잡고 간 듯하다.

110

진실로 이 遺訓(유훈)²⁰⁾을 腔子裏(강자리)²¹⁾에 가득 담아
 誠意正心(성의정심)²²⁾하야 修誠(수성)²³⁾을 넓게 하면
 言忠行篤(언충행독)²⁴⁾하야
 사람마다 어질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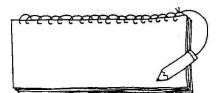
진실로 남기신 뜻 강자리에 가득 담아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옳게 세워
 진실 되게 말을 하고 몸가짐을 두텁게 해
 사람마다 어질도다.

- 1) 옥산서원의 집채.
- 2) 영원히 끊이지 않고 지내는 춘추제향.
- 3) 세월이 흐를수록 우러러 모심.
- 4) 공자를 모신 신위에 제향함.
- 5) 우리나라.
- 6) 문화.
- 7) 송나라 주희가 머물러 공부하던 곳.
- 8) 용이 잠긴 듯한 연못.
- 9) 신령스런 존재, 곧 용.
- 10) 하늘의 오묘한 재주.
- 11) 끝없이 훌륭한 경치.
- 12) 즐기느라 돌아가기를 잊음.
- 13) 한 달.
- 14) 오래 머물.
- 15) 건문이 좁고 고집이 셈.
- 16) 정성과 공경.
- 17) 모든 말과 글.
- 18) 유학의 연원과 공부의 과정.
- 19) 촛불.
- 20) 죽은 이(이언적)가 남긴 훈계.
- 21) 뱃속.
- 22) 자신의 뜻을 진실 되게(성의)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정심).
- 23)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성실하게 함.
- 24) 말을 진실되게 하고 행동을 두텁게 함.



先生遺化至極(선생유화지극)함이 엇더하뇨
 嗟哉(차재)¹⁾ 後生(후생)들아 趨仰(추앙)²⁾을 더욱 높혀
 萬世千秋(만세천추)에 山斗(산두)³⁾갓치 바리사라
 天高地厚(천고지후)⁴⁾도 有時盡(유시진)⁵⁾하려니와
 獨樂堂淸風(독락당청풍)은 가업실가 하노라

선생의 가르침이 지극함이 어떠하뇨.
 아아, 후생들아 추앙을 더욱 높여
 천년 만년 태산과 북두 같이 바라보라.
 높은 하늘 두터운 땅 다할 때가 있으려니와
 독락당 맑은 기운 끝없을까 하노라.



-
- 1) 아아,
 2)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3) 태산과 북두칠성
 4)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움.
 5) 다할 때가 있음.



제 5 강

日東壯遊歌(일동장유가)

金仁謙(김인겸)

평생(平生)의 소활(疎闊)하야 공명(功名)의 쓰디 업니
 진스청명(淸明) 족하거니 대과(大科)하야 무엇하리
 당둥 제구(場中諸具) 업시하고 유산(遊山) 행장(行裝) 출혀 내여
 팔도(八道)로 두루 노라 명산(名山) 대천(大川) 다 본 후의
 풍월(風月)을 희롱(戲弄)하고 금호(金湖)의 누엇더니
 북창(北窓)의 잠을 썩야 세상 괴별 드러 하니
 관백(關白)이 죽다 하고 통신스(通信使) 청하더니

이제는 어느 쟤고 계미(癸未) 팔월 초삼이라
 북궐(北闕)의 하직(下直)하고 남대문 내드라서
 관왕묘(關王廟) 얼핏 지나 전성서(典牲署) 다드르니
 스형을 전별(餞別)하랴 만도(滿朝) 공경(公卿) 다 모닷니
 곳곳이 당막(帳幕)이오 집집이 안마(鞍馬)로다
 좌우 전후 피와 들어 인산인해(人山人海) 되여시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 잡고 우탄(吁嘆)하고
 철 모르는 소년들은 불워하기 측량(測量) 업니

석양(夕陽)이 거의 되니 늦춌치 고별(告別)하고
 상마포(上馬砲) 세 번 노코 차례로 떠나갈 식
 절월(節鉞) 전비(前陪) 군관(軍官) 국서(國書)를 인도하고
 비단 일산(日傘) 순시(巡視)녕기(令旗) 스신(使臣)을 피와섯다
 내 역시 뒤를 따라 역마(驛馬)를 칩더 트니
 가치옷 지로 나장(指路羅將) 깃쫂고 압희 서고
 마두서자(馬頭書者) 부촉하고 쌍꺄마 잡았고나
 세씩놈의 된소리로 권마성(勸馬聲)은 무슨 일고
 아모리 말나여도 전례(典例) 부덕 하네
 백슈(白鬚)의 늙은 선비 졸연(猝然)이 별성(別星) 노릇
 우습고 괴괴(奇怪)하네 늙 보기 슈괴(羞愧)하네

평생에 어설퍼서 출세에는 뜻이 없네.
 진사 청렴 만족하니 높은 벼슬 무엇 하리.
 과거 준비 그만두고 놀러 다니는 옷차림에
 전국을 두루 돌아 명산대천 다 본 후에
 자연을 희롱하며 금호¹⁾에서 지냈는데
 서재에서 잠을 깨어 세상 소식 들어보니
 관백²⁾이 죽었다고 통신사를 청한다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계미년³⁾ 팔월 삼일이라.
 궁궐에서 하직하고 남대문으로 내달아서
 관우 사당 얼핏 지나 전생서⁴⁾에 다다르니
 사신 일행 전송하려 만조백관 다 모였네.
 곳곳마다 장막이고 집집마다 말이로다.
 좌우 전후 모여 들어 인산인해 되었으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잡고 걱정하고
 철모르는 소년들은 부러워하기 한이 없네.

석양이 거의 되니 하나하나 이별하고
 대포 소리 세 번 놓고 차례로 떠나갈 때
 절월⁵⁾을 인도하는 군관 국서를 인도하고
 비단 양산 순시 영기 사신을 둘러섰다.
 나 역시 뒤를 따라 역마에 올라타니
 가치 옷 지로나장⁶⁾ 깃을 쫂고 앞에 서고
 마두 서자⁷⁾ 부촉하고 쌍두마를 잡았구나.
 청과 역졸 큰 소리 물렸거라 무슨 일인가
 아무리 말리려도 의례라고 굳이 하네.
 흰 수염의 늙은 선비 갑자기 사신 노릇
 우습고 괴이하니 남 보기에 부끄럽다.

1) 금강 아래의 호남지방

2) 도쿠가와 이에야스

3) 1763년

4) 조선 시대에, 나라의 제향에 쓸 양·돼지 따위를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5) 조선 시대에, 관찰사·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대장(大將)·통제사 등이 지방에 부임할 때에 임금이 내어 주던 물건. 절은 수기(手旗)와 같이 만들고 부월은 도끼와 같이 만든 것으로, 군령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다.

6) 앞길을 인도하는 사령

7) 역관에서 말을 담당하던 구실아치.



(중략)

당풍(壯風)의 돛출 드라 육선(六船)이 흠씩 썰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산해(山海)를 진동하니
물 속의 어룡(魚龍)들이 웅당이 놀라도다
항구(海口)를 얼핏 나쳐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고국(故國)을 도라보니 야식(夜色)이 창망(滄茫)하야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희변진(沿海邊鎭) 각 포(浦)의
불빛 두어 덩이 구름 밝기 뵈 만하니
빅방의 누어 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긋득이 심난흔디 대풍이 니러나니
태산 긋튼성넌 물결 텀디의 즈옥하니
큰나큰 만곡쥬(萬斛舟) 나모넉 브치이듯
하늘의 올라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지이터로 구버 있고
썸두 북 초석 돛춘반들쳐로 비블렀니
굵은 우레 존 별악은 등 아래서 딴동하고
성넌 고래 동흔농은 물 속의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잣바지고 엎더지고
상하 좌우 빅방 널은 뉘뉘히 우는구나

이윽고 희 돛거늘 장관(壯觀)을 흐여 보시
니러나 빅문 열고 문설쥬 잡고 서서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싱턴디간의 이런 구경 쏘 어딴 이실고
구만(九萬) 니 우뚝 속의 큰 물결분이로써
등 뒤호로 도라보니 동녘(東萊) 뵈이 눈썹 긋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가 ㄴ이 업니
우아리 프른 빗치 하늘 밝기 다하 잇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딴로 가느작고
흠씩 썰는 다솜비논 간디를 모를로다
스면을 두루 보니 잇다감 물결 속의
부채만 차근 돛치 들락날락 하는구나

(중략)

선중(船中)을 도라보니 저마다 슈질(水疾)하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昏絶)하야 죽게 알니
다행히도 종사상(從使相)은 태연이 안즈시구나
빅방의 도로 드러 눈 감고 누웠더니

(중략)

큰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배가 함께 떠나
삼현¹⁾과 군악 소리 산과 바다 진동하니
물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라도다.
항구를 얼른 떠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해안 군영 각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 듯해
배방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만석 실는 큰 배가 나뭇잎처럼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썸두 폭 엮은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천둥 작은 벼락 등 뒤에서 떨어지고
성난 고래 일어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배방의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앞앞마다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돛거늘 장관을 구경 하세.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어와 굉장하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이로세.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 산이 눈썹 같고
동남쪽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단 말인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곳을 모르겠다.
사방을 두루 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중략)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뱃멀미에
똥물을 다 토하고 기절할 듯 죽게 앓네.
다행히도 종사상²⁾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방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1)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의 세 가지 현악기

2) 통신사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



덕마도 갓갑다고 사공이 니르거늘
고터 니러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초로 모다 왔네
그제야 돛출치고 빙 머리의 줄을 밋야
왜선을 더지으니 왜놈이 줄을 바다
제 빙에 밋여 노코 일시의 느리으니
선형(船行)이 안온하야 좌슈포(佐須浦)로 드러가니
신시(辛時)는 하여 잇고 복선(卜船)은 묻져 왔다

포구(浦口)로 드러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봉만(峯巒)이 삭립(削立)하야 경치가 괴절(奇絶)하다
송송(松杉) 툇빅(竹栢)
굴뉴(橘柚) 등갑 다 물속 등청일식
왜봉(倭奉) 여섯놈이 검도정(劍道亭)의 안잣구나
인가(人家) 1) 쇼도(疎濶)하고 여괴 세 집 더귀 네 집
합하야 해게 되면 스오십 호(戶) 더 아니타
집 형상이 궁숭(穹崇)하야 노척덤이 갓고내야

곳 보는 왜인들이 안자 구버본다
그 둥의 스나히는 머리를 찢가시더
꼭뒤만 조금 남겨 고쵸상토 하여시며
발 벗고 바디 벗고 칼 하나씩 츠 이시며
왜녀(倭女)의 치장들은 머리를 아니 깎고
밀기름 듬북 발라 뒤호로 잡아 밋야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여 잇고
그 갓춘 두로 트러 빈허를 질러시며
무론(無論) 노쇼 귀천(老少貴賤)하고 어레빋슬 쏘잣구나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업슨 두루마기
한 동 단 막은 소매
남녀 업시 한가지요
넓고 큰 접은 썩를 느죽히 둘러 썩고
일용 범빅(日用凡百) 온갖 거슨 가슴 속의 다 품었다
남진 잇는 겨집들은 감아하게 니[齒]를 칠하고
뒤호로 썩를 밋고 과부 처녀 간나히는
압호로 썩를 밋고 니를 칠티 아낫구나

(중략)

점심 먹고 길 써나서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배를 끌려 모여 왔네.
그제서야 돛 내리고 뱃머리에 줄을 매어
왜선에 줄 던지니 왜놈이 그걸 받아
제 배에 매어 놓고 일시에 노 저으니
뱃길이 편안하고 좌슈포로 들어가니
신시¹⁾쯤 되어 잇고 짐 실은 배 먼저 왔네.

포구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산봉우리 깎은 듯이 모습도 기이하다.
소나무, 삼나무, 대나무, 잣나무,
굴나무, 등갑 등이 모두 다 등청색일세.
왜인 종자 여섯 놈이 검도정에 앉았구나.
인가가 드물어서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합하여 헤아리면 오십 호가 되지 않네.
집 모습이 몹시 높아 노척더미 같구나.

구경하는 왜인들이 산에 앉아 굽어본다.
그 중의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으되
뒤통수만 조금 남겨 고추상투 하여 잇고,
발을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씩 차고 있으며
여자들의 치장은 머리를 아니 깎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로 잡아매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며 잇고,
그 끝은 둘로 틀어 비녀를 질렀으며
노소 귀천 가리지 않고 열레빋을 꽃았구나.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한 동으로 된 옷단과 막은 소매가
남녀 구별 없이 한가지요,
넓고 크게 접은 띠를 느슨하게 둘러 띠고
늘 쓰는 모든 물건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남편 잇는 여자들은 이를 겹게 칠하고
뒤로 띠를 매었고, 과부, 처녀, 계집아이
앞으로 띠를 매고 이 칠하지 않았구나.

(중략)

점심 먹고 길 떠나서

1) 오후 7시쯤



이십 니는 겨요 가서 날 저물고 대우(大雨)하니
 길이 즐기 참혹하야 밋그럽고 쉬는디라
 가마 멘 다섯 놈이 서로 가며 체번(遞番)하디
 갈 길이 바히 업서 두던에 가마 노코
 이욕이 주더(躊躇) 하고 갈 뜻이 업는지라
 스면을 도라보니 텃디(天地)가 어둡고
 일행들은 간 디 업고 등불은 꺼져시니
 지척(咫尺)은 불분(不分)하고 망망(茫茫)한 대야똥(大野中)의
 말 못하는 예놈들만 의지하고 안자시니
 오늘밤 이 경상(景狀)은 고단코 위턱하다
 교군(較軍)이 드라나면 낭픽(狼狽)가 오죽할까
 그놈들의 오솔 잡아 흔드려 쓰줄 뵈고
 가마 속의 잇던 음식 갓갓지로 내여 주니
 지저귀며 먹은 후의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 전진하야 곳곳이 가 이러하니
 만일 음식 업듯더면 필연코 도주할씩
 삼경냥은 겨요하야 대원성(大垣城)을 드러가니
 두통하고 구토하야 밤새도록 대통(大痛)하다

십육일 우장 넘고 강호(江戶)로 드러갈식
 왼편은 너염(閭閻)이오, 올흔편은 대히(大海)로다
 피산대해산(避山對海)하야 옥야 천니(沃野千里) 삼겟는디
 누덕 제택(樓臺第宅) 샤치흠과 인물 남녀 번성하다
 성첩(城堞)이 정장(亭壯)한 것과 고냥쥬쥬(高粱舟楫) 기특한 것
 대판성(大阪城) 서경(西京)도곤 삼빅나 더하구나
 좌우의 굿 보나니 하 장하고 무수하니
 서어(齟齬)한 붓 굿츠로 이로 귀록 못 홀로다
 삼십 니 오는 길히 빈틈 업시 못거시니
 대체로 헤어 보면 빅만을 여러힐쇠
 녀식(女色)의 미려(美麗)하기 명호옥(名護屋)과 일반일다

실상사(實相寺)에 드러가니 여기도 무장쥬(武藏州)에 쇠
 처엄의 원가강(源家康)이 무장쥬 태슈(太守)로서
 평슈길(平秀吉) 죽은 후의 평가(平家)를 업시하고
 이 싸의 도읍하야 강(強)하고 가음열며
 빅포(排布)가 신밀(愼密)하고 법녕(法令)도 엄준(嚴峻)하야
 지려(志慮)가 심장(深長)하야 왜국(倭國)을 통일하니

이십 리를 겨우 가서 날 저물고 큰비 오니
 길이 질기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가마 멘 다섯 놈이 돌아가며 교대하나
 갈 길이 전혀 없어 둔덕에 가마 놓고
 이욕고 주저하며 갈 뜻이 없는지라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아득하고
 일행들은 간 데 업고 등불은 꺼졌으니
 지척을 알 수 없고 망망한 들판에서
 말 못하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밤 이 몰골은 고단하고 위태하다.
 가마꾼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가져가며
 가마 속의 잇던 음식 가지가지 내어 주니
 지저귀면 먹은 후의 그제야 가마 메고
 천천히 전진하나 곳곳에서 이러하니
 만일 음식 없었으면 필연코 도주할 새.
 삼경¹⁾이 겨우 되어 대원성에 들어가니
 두통하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크게 앓다.

십육 일에 비웃 입고 강호²⁾로 들어갈 때
 왼편은 마을이요, 오른편은 큰 바다로다.
 산 피하고 바다 향한 기름진 큰 들판과
 누각과 집은 사치스럽고 사람들이 번성하다.
 높은 성곽 장한 모습 큰 배의 대단한 모습
 대판성 서경³⁾보다 세 배는 더하구나.
 좌우에 구경하는 이 장하고 숫자 많아
 어설픈 붓끝으로 이루 적지 못하겠다.
 삼십 리 오는 길이 빈틈없이 이어지니
 대체로 헤아리니 백만이 여럿이네.
 여자들 아름답기 명고옥⁴⁾과 다름없다.

실상사로 들어가니 여기도 무장주일세,
 처음에 가강⁵⁾이 무장주의 태수로서
 풍신 수길 죽은 후에 가족들을 없애 버리고,
 이 땅에 도읍하여 강하고 부유하며,
 계획이 치밀하며 법령도 엄격하고
 생각도 깊어서 왜국을 통일하니,

1) 밤 12시쯤

2) 도쿄

3) 오오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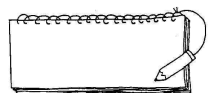
4) 나고야

5) 도쿠카와 이에야스



아모커나 제 뉴(類)의는 영웅이라 흐리로다
 가강(家康)이 죽은 후의 즈손이 니어서서
 이 쟈식디 누려 오니 복력(福力)이 가륙흐다
 십칠 일 비 개잔코 실상스셔 묵으니라

아무튼 제 무리에서 영웅이라고 하겠도다.
 덕천 가강이 죽은 후에 자손이 이어져서
 이때까지 누려 오니 복력이 기특하다.
 십칠 일에 비 개지 않아 실상사서 묵었구나.





제 6 강

萬言詞(만언사)

安肇源(안조원)

어와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세상살이 마음이 그 아니 복받칠까.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 백년이라
 하물며 백년도 반듯 살기 어려운데
 인생은 순간이오 하찮은 존재로다.
 하늘과 땅 사이로 지나가는 손이로다.
 빌려온 인생인데 꿈같은 몸 가지고서
 남자가 해야 할 일 평생을 다 하여도
 풀끝의 이슬이라 오히려 덧없거든
 어와 내 신세야, 지난 세월 헤아리니
 반생이 채 못 되어 이제 겨우 서른 넷
 지난일 생각하고 지금 일 헤아리니
 되돌리기 어려워라, 오르내림도 많았구나.
 남들도 그러한가. 나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내 일이라도 나 역시 알 수 없네.
 한숨 탄식 절로 나니 섬에서의 슬픔이라.

부모님 날 나실 때 죽은 나를 나오시니
 부귀공명 하게 될지 외딴 섬에서 고생하게 될지
 하늘이 도왔는지 신선의 처방인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 홀연히 살아났네.
 평생 운명 점을 치니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였는데
 귀양갈 일 생각했고 이별할 일 생각했나.
 때때옷 곱게 입은 노래자를 본받으며
 부모 앞에 재롱떨며 시름없이 자랐는데
 어와 기구하다 나의 운명 박명하다.
 십일세에 모친 잃고 슬피 울다 기절하니
 그때에 죽었으면 지금 고생 아니 하리.
 한번 살 세상 두 번 살아 즐거움을 보려는지
 큰 슬픔에 눈물 흘린 명절이 몇 번인가.
 십년 길러주신 외가 은공에 호의호식 그렸으랴.
 잊은 일도 많다마는 받들지도 못하였네.
 새어머니 들어오셔서 어질게 키우셨으니
 맹자 모친 본받아 일마다 덕을 베풀었네.
 증자 모친 베틀 던짐은 날 믿음이 아니었나.

눈발에서 죽순 돋아 지성이 감천이요
 가난해도 부모봉양 효자의 도리로다.

입신양명은 글쓰는 이의 영광이로다.
 행세하는데 으뜸의 일 글밖에 또 있는가.
 동사고문 사서삼경 당음장편 송명사를
 자세히 숙독하고 글자마다 외웠으니
 읽기도 하려니와 글짓긴들 아니하랴.
 삼월 봄바람의 꽃 버들과 구월 국화 단풍 아래
 시인 화가 벗이 되고 음풍영월 일 삼으니
 당시의 격식이오 송명시의 재치로다.
 글과 글씨는 한 가지라 어느 것이 다르겠나
 짓기도 하려니와 쓰기를 아니하랴.
 화려한 벽 글씨와 사치로운 공자의 병풍 글씨
 왕희지의 글씨인가 조맹부의 글씨인가.

한 때는 재동이라 일컫더니 유명무실하여
 배필을 얻지 못해 잠 못 이뤄 생각하니
 혼인이 늦어가다 이십 년에 맞은 부인
 태도 바르고 얹전하여 여인의 법도 알았으니
 내조에 어질어 성가시킬 징조로다.
 어진 백부 아래 화목하게 모여 살아
 집안 식구 한데 모여 기쁨스름 같이 하니
 살림 걱정 누가 할까, 집안 가난 나 몰라라.
 입신양명 길을 찾아 권문가에 몸을 맡겨
 장군집과 정승집에 비장 기실처럼 드나들며
 호탕하게 즐기는 것은 소년들의 놀이로다.
 화려한 차림을 뽐냄은 나도 잠깐 하오리다.
 예전 마음 전혀 잊고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귀한 벗과 가벼운 벗 모두 다 어울린다.
 무릉장대 천진교도 명승지로 알려졌다.
 삼청운대 광통교인들 놀이처가 아니런가.
 매일매일 좋은 경치 술집마다 찾아가서
 가득한 술 좋은 안주에 여인에게 빠져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청아한 노래와 멋진 춤을 희롱할 때
 호화로운 풍류 생활 신선이 부러우랴.



모든 일에 관심 없다 홀연 양심 일어나네.
 소년 놀이 그만하자 부모 근심 깊으시다.
 화려함을 자랑마라 공부가 늦어간다.
 옛 마음 다시 생겨 하던 공부 고쳐하여
 밤을 새워 낮을 이어 쉬지 않고 하는구나.
 부모봉양 하려던지 내 몸 위한 일이런지
 수삼 년을 견디어 내니 무식함을 면하였다.
 어와 바랐으랴 꿈결에나 바랐으랴.
 어악원에 들어가서 궁궐의 문을 열어
 몸 디미니 천한 내 몸 궁궐 근처 바랐으리.
 비단옷을 몸에 감고 귀한 음식 베고 있어
 부귀에 쌓였으며 화려함에 잠겼어라.
 벼슬길에 서니 일을 겸하게 되었구나.

나라 일을 잘못하여 복이 다해 화가 생겨
 벼슬에서 쫓겨나 칠일 옥중에서 지내오니
 곱던 의복 색 바래고 좋은 음식 맛이 없네.
 끝없는 임금 은혜에 슬픔이 기쁨 되네.
 어와 과분하다 임금 은혜도 과분하다.
 두 궁궐일 말긴 은혜 생각할수록 과분하다.
 비단옷 좋은 음식 부귀영화 다시 얻고
 장안 넓은 길로 화려하게 다닐 적에
 친척이 아니어도 가까운 친척처럼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하니
 입신도 하였다 하고 양명도 이루었다.
 모든 일이 뜻 대로니 임금 은혜 모를 소나.

충성이란 목숨을 다하는 일이라니
 몸을 부쉬 나라에 보답해야 하거늘
 갑자기 부귀하니 상서롭지 못해
 쓸모없는 말이 되어 버림받게 되었구나.
 일어나면 망하게 되고 흥하면 슬퍼지니
 다 오르면 내려오고 가득차면 넘치나니
 호사다마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세상에 많은 죄 지어 꽃밭에 불 지른 듯
 푸른 하늘 맑은 대낮에 천둥 번개 급히 치니
 혼백이 달아나서 인사불성 되었구나.
 옷도 무거운 약한 몸에 이십오 근 칼을 쓰고
 족쇄를 찬 후에 감옥에 들었는가.
 나의 죄를 헤아리니 산과 같고 바다 같다.
 아깝다 내 일이야 애꿎다 내 일이야.

평생 한마음으로 충효를 하려했는데
 한 번 일을 그릇하여 불충불효 다 되었다.
 이제 와 후회해 뉘우친들 무엇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신하가 죄 짓자 했겠냐마는
 큰 액이 부닥뜨리니 눈조차 어둡구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불속으로 들어간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내 목숨을 귀히 여겨 섬으로 보내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나루터에 배를 대어 부모친척 이별할 제
 슬픈 눈물 한숨소리 막막하고 근심스러워
 손잡고 이른 말씀 잘 가거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 나오겠나.
 취한 듯 미친 듯 눈물로 하직이라.
 강 위에 배 떠나니 이 때에 이별이로다.
 산천이 근심하니 부자가 이별함이로다.
 노 젓는 소리에 흐르는 배 살 같으니
 긴 강이 어느덧 가로 막겠는가.
 바람결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행인도 눈물지니 내 가슴 미어진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멀어지니 애고 소리 뿐이로다.
 천지에 울부짖어도 가야할 길 아니갈까.
 범 같은 관차들은 빨리 가자 재촉하니
 어쩔 수 없어 말에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구비인가.
 넘어가도 산이거늘 건너가도 물이로다.
 석양은 언덕을 넘고 빈산이 적막한데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피 토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는 무슨 일인가.
 네 일을 말하는가 내 일을 말하는가.
 가뜩이나 허튼 근심 눈물에 젖었어라.
 넓은 물로 이어지니 내 근심 먹음은 듯
 수풀에 이슬 맺히니 내 눈물 뿌리는 듯
 굵 뜨는 말 재촉하니 앞 참은 어디인가.
 높은 재 반겨 올라 고향을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 속에 갈매기 날 뿐이로다.

경기도 다 지나고 충청도 다다르니
 계룡산 높은 산을 영접결에 지나쳤다.
 고을마다 관문 받고 고을마다 점고하여



‘은진’을 넘어가니 ‘여산’은 전라도라
 ‘익산’ 지나 ‘전주’ 들어 ‘성시산림’ 들어보니
 반갑다 남문 길이 ‘장안’도 그대로다.
 ‘백각전’ 펼쳐있으니 ‘종각’도 지나는 듯
 ‘한벽당’ 깨끗한데 아침 해가 높았구나.
 ‘금구’, ‘태인’, ‘정읍’ 지나 ‘장성’ 역마 갈아타고
 ‘나주’ 지나 ‘영암’ 들어 월출산을 돌아가니
 만이천봉이 허공에 솟아 있는 듯
 한 나라의 명산이라 경치도 좋다마는
 내 마음 아득하니 어느 겨를에 살펴보리.
 ‘천관산’을 가리키고 ‘달마산’을 지나가니
 낮밤 가리지 않고 몇 일만에 해변으로 왔단 말인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세차구나.
 끝이 없는 바다요 한계 없는 파도로다.
 세상이 생겨난 후 하늘땅이 광대하거늘
 하늘 아래 땅만 있는 줄로 알았더니
 지금 볼 양이면 천하가 다 물이로다.
 바람도 쉬어 가고 구름도 멈춰가네.
 나는 새도 못 넘는데 저기를 어찌 가자는가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하는 듯
 뱃머리의 흰 깃발 동남쪽을 가리키니
 천석 싣는 대중선에 쌍돛을 높이 달고
 긴장한 도사공이 뱃머리에 높이 서서
 지곡총 한 곡조를 어사와로 화답하니
 마디마다 처량하다 귀양가는 이 마음 어떠할까.
 머리 돌려 서울 보니 뜬 구름이 해 가린다.
 나가는 길 어인 길인가 무슨 일로 가는 길인가.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을 찾아가니
 동남동녀 아닌데 방사 서시 따라가랴.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루 오르랴나
 소상강 곳은 비에 조상군 하려는가.
 전원이 황폐해지니 귀거래 하려는가.
 농어회 살렸으니 강동거 하려는가.
 다섯 오랑캐 속에서도 자기 몸을 구하려는가.
 긴 고래 잠깐 만나 하늘로 오르려는가.
 부모처자 다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나.
 우는 눈물 연못 되어 큰 바다에 보태는구나.
 어디서 검은 구름 미친 바람 무슨 일인가.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젖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임금 은혜로 남은 목숨 다하게 되겠구나.

초한 싸움 한나라의 장군 기신이 되려니와
 서풍에 해지는데 먹라수에 빠져죽는 굴원은 원치 않
 네.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운명
 죽고 사는 일을 어찌할까.
 삼일 밤낮 죽다 살아 노와 닳을 내려니
 물길 천리 다 지나고 추자섬이 여기로다.
 섬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아주 심해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을까.
 보이나니 바다이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와 상전이 나뉘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하늘이 만들어낸 지옥이 추자섬이라.
 바닷물로 성을 싸고 구름으로 문을 내어
 세상과 끊어졌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집으로 가자는가.
 눈물이 가리니 걸음마다 얼어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려니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애가 의지하려니 사정있다 거절하네.
 이집 저집 어느 집이 적객주인 뉘 좋다고
 관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말았으나
 관차에게 못한 말을 만만한 내게 하네.
 세간 그릇 흠어 던지며 역정 내며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아리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관리들은 뇌물 받고 손님네는 모진 말 들어
 구태여 내 집에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살이 가난한 줄 보시면 아니 알가.
 앞뒤에 논밭 없고 물속에서 생계 이어
 앞 언덕에 고기 낚아 뒷동네에 장사 가니
 삼망으로 얻은 보리섬은 믿을 것도 아니로세.
 처자식 있어 세 식구도 먹고 살기 어렵거든
 양식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도 설 수 없어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갈대 자리 한 잎 주어 처마 밑에 거처하니
 찬 땅이 눅눅하고 짐승도 많기도 많네.
 한 발 넘는 구렁이 한 뼘 넘는 푸른 지네
 좌우로 둘러오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해지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술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가.
 이별하는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조반드니
 덜 담은 보리밥에 된장 덩이 한 종지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때도 적지 않다.
 여름날 긴긴 날은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 여름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명석인가.
 덥고 검은 것은 그러해도 냄새는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하게 되었구나.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가지 않았는데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좋은 밥과 반찬 어디 가고 보리밥에 소금 간장
 비단옷 어디 두고 누더기를 입었는가.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이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인가 미친 사람 되었구나.

어와 보리 익는 가을 되었는가.
 앞산 뒷산이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보리 물결치는구나.
 지계를 벗어 놓고 밭에서 일하는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어난들 무엇하리.
 해마다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찼어 내어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빚고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배불리 먹고 격앙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즐거움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그른 줄 아나.
 뉘우치는 마음 없지는 않겠지만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둥칠 줄 알았으면 잠깐 누각에 올랐으랴.
 배가 깨질 줄 알았으면 배에 쌀을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두었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하였으랴.
 산진메 수진메와 해동청 보라매가
 깊은 숲에 숙여 들어 닭과 양을 차고 날때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이 나서 가시나무에 걸리었다.

어아 민망하다 주인박대 민망하다.
 술 아니 먹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놀랍지 않다.
 혼자 말로 군말하듯 나 들으라 하는 말이
 “건넌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죄를 짓고
 외딴 섬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 고기 낚기 나무 베기
 돛자리 치기 신 삼기와 보리 동냥하여
 주인 양식 보태는데, 우리 집 객은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 되도 공짜 밥만 먹으려나.
 써야 하는 열 손가락 꿈쩍도 아니하고
 걸어야 하는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아니 하네.
 썩은 나무에 박힌 끝인가, 전당 잡힌 촛대인가.
 종 찾는 양반인가, 빚 받으려는 빚쟁인가.
 동이성 친척인가, 방금 사귄 친구인가.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신인가 바보인가.
 화초처럼 두고 볼까, 괴석이라 놓고 볼까.
 은혜 베푼 일이 있어 특명으로 먹으려나.
 제가 지은 죄 내 알 것인가, 제 시름 뉘 알 것인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 싫증 나고 보기에도 귀찮도다.”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 원통하고 분하다만
 풍속을 보아하니 놀랍고 이상하다.
 인륜을 모르니 부자간에 싸움이요
 남녀를 가리지 않으니 계집이 등짐지네.
 사투리가 이상하니 귀한 손님 알 것인가.
 다만 아는 것은 손꼽아 헤아리기
 둘 다섯 홀 다섯 못 다섯 꼽기로다.
 포함과과 탐욕스러움이 예의엄치 되고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 삼으며
 한두 가지 공덕으로 효도를 안다 하고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처럼 볼품없고
 출필고반필면은 병어리라 아예 모르네.
 왕의 도리가 미치지 않는 오랑캐의 행동이로다.
 사람 마음 아닐진대 사람이라 책망하랴.
 내 귀양살이 아니면 이런 모양 보았으랴.
 조그마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눈먼 줄은 한탄하고 개천 원망 안 하나니
 주인이 아니어서 짚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생계를 생각하네.
 고기를 낚자하니 배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뚝자리치기 신 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망건 벗고 갓 숙여 쓰고 홀 중치막에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부채로 얼굴 가리고
 담배 없는 빈 담뱃대 심심풀이 들고나가
 비틀비틀 걷는 걸음 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살이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하되, 오늘 아침 가난하니
 부귀가 꿈이런가, 가난이 꿈이런가.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게 정말 꿈인가.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꿈에서는 흥하니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인가.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가.
 사립문을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을까.
 철없는 어린 아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이상하다 다리 이름 이상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흙다리라.
 정월 대보름 밝은 달에
 서울 거리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단지와 금술잔은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옷다리 아래 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 다리 판자 다리 사람 두 다리 돌아 들어
 중춘에 올라 광통다리 굽은다리 수포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랑 위 걸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모든 다리 다 알아도 귀양다리는 금시초문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헛다리 병든 다리
 두 손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 멀지 않아
 한 층을 조금 높여 손님이라 해 주렴.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냥 말이 나오더냐.
 장타령 입에 물고 나오지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없어 천한 것들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위아래 없어 종에게도 존대로다.
 혼자말로 중얼중얼 굶주린 중 들어왔다.
 집안 사람 눈치 채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요. 불쌍한 귀양 동냥 예사오니.”
 막상 받게 되니 마지못해 고맙다 하네.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노비 있어 운반하리. 아무튼 내 저 보리라.
 갓은 숙였지만 홀 중치막은 어찌할까
 주변머리 으뜸이라 어떻게든 지어볼까
 넓은 소매 구겨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등거리 제법이라 별로 이상치 않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굶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에 천신만고 겨우 오니
 어려운 이 마주하나 부끄러워 땀이 나네.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어쩔 수 없네. 동냥도 하시었오.
 귀한 손님도 숙절없네. 등짐도 지시었오.
 밥값을 하였으니 저녁 밥 많이 먹소.”
 네 웃음 듣기 싫고 밥 많아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매양 빌어 먹으랴.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신이나 삼자꾸나.
 짚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 노도 못 꼬는데 새끼 꼬기 어이하리.
 한 발도 다 못 꼬아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수 없어 내려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돛자리 노를 배워 꼬니 근심 많은 이 내 마음
마음 붙일 데 없어 노꼬기에 붙이었다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계절 되었는가.
오동나무 낙엽지고 가을바람 쓸쓸하니
오리는 나란히 날고 가을 하늘 한 빛일 때
노란 국화 단풍은 비단 장막 되었으며
산 가득한 나무 풀은 잎잎마다 가을 소리
새벽에 서리칠 때 외기러기 슬피우니
먼저 들은 외로운 객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래 돋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지고
낙락장송 바람 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오동주야 달이 되어 비취어나 보고지고
분벽사창 가는 비로 뿌려서나 보고지고
추월춘풍 몇 해 동안 밤낮없이 지내다가
떠나면 곳 옮겨 와서 소식조차 끊어지니
철석간장 아닐진대 그리움을 견디겠나.
어와 못 잊겠다 임을 그리워 못 잊겠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껏 베어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어 흐르나니
물 베는 칼도 없고 정 베는 칼도 없네.
물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 어이하리.

용 자취도 가볍게 되고 좋은 샘물 흐려져도
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겠는가.
내 이리 그리운 줄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아질 때 있었으니
된서리 차다한들 비와 이슬이 아니 올까.
울음 울어 떠난 입을 웃음 웃고 만나고저.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오르니 무엇으로 꺼야 할까.
끄기가 어려울 건 오장의 불이로다.
하늘의 물 얻어오면 끌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네.
차라리 편히 죽어 이 설움을 잊자하고
포구 모래밭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바다에 몸 던지렘도 한두 번 아니오며,
쓸쓸한 한 문 굳게 닫고 온갖 생각 다 버리고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렘도 한두 번 아니오며,

일각삼추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까.
사립문에 개가 짖네 풀어준다는 문서왔다.
반겨서 바라보니 전어 파는 장사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사문 실은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낚은 어선이라.
하루는 열두 시간 몇 번을 기다렸나.
설움 모여 병이 되니 백 가지 병이 든다.
배고파 허기증과 몸 추워 냉증이요,
잠 못들어 현기증 늘 앓는 것은 조갈증,
술 때문에 든 병이라면 술을 먹어 고치겠고,
임 때문에 든 병이라면 임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으로 든 병에는 공명하여 고치겠지.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겠는가.
신농씨 꿈에 만나 병 고친 약을 물어
청심환 회심단에 강심탕을 먹는다 해도
천금준마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침이라.
대장간 일 배웠더니 눈 어두운 모양이다.

어와 이 사이에 해 벌써 저물었다.
맑은 가을 다 지나고 추운 겨울 되었구나.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세차게 불어
산의 위 아래 백옥경이 되었으니
십이루의 다섯 경치 모두 모인 듯하구나.
저 건너 높은 산에 홀로 선 저 소나무
오상고절은 내 이미 알았으니
광풍이 아무리 불어도 겁날 것이 없거니와
도끼 덴 나무꾼이 행여나 찍으려나.
동백꽃은 눈 속에 붉게 피었으니
눈 속의 동백꽃은 학머리처럼 붉었구나.
옛그제 그리 불던 바람 간밤의 이리 내린 눈에도
높은 절개 고운 빛이 변하지 않았으니
봄바람에 도리화는 도리어 부끄럽다.
어와 밖에서 자야하니 눈보라를 어찌하리.
버선 신발 다 없으니 발이 시려 어이하리.
하물며 찬 데 누워 얼어 죽기 잠깐이다.
주인에게 애원하여 반 칸 방에 의지하니
흙벽을 발랐어도 종이벽만 할 것인가.
벽마다 틈이 벌어 틈마다 벌레로다.
노래기 섞여 있어 웬만한 벌레 두려울까.
굶은 벌레 주워내고 작은 벌레 던져버려
대나무 엮어 문을 하고 현 자리로 가리니
작은 바람 가리어도 큰 바람은 어찌하리.



길 가운데 나무 모아 아침저녁 겨우 짓네.

가난한 손님방에 불기운이 들어올까.
 섬 거적 뜯어 펴니 선단 요가 되었거늘
 개가죽 덮고 쓰고 비단이불 삼았구나.
 적막한 빈 방안에 게발 물어 던지듯이
 새우잠 움츠리며 긴긴밤 새워 지낼 때
 위로는 한기 들고 아래로는 냉기올라
 이름은 온돌이나 한 데만도 못하고야.
 육신이 눈사람돼 오한이 저절로 날 때
 송신하는 솟대인가 과녁 맞은 화살대인가.
 비바람에 떠는 문풍지인가 칠보광의 금나비인가.
 사랑하는 이 안고 떠나, 겁이 나 놀라 떠나.
 양생법을 모르는데 이빨은 왜 부딪치나.
 눈물 흘려 베개 젖어 얼음조각 비석인가.
 새벽닭 뻘뻘우니 반갑다 닭의 소리
 단봉문 대루원에서 문 열리는 시간이네.
 새로 눈물지고 큰 탄식 하던 때에
 동창이 이미 밝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나 앉아 굶은 다리 펼 때에
 삭정이가 부러지듯 마디마디 소리 난다.
 돌담뱃대에 담배 넣고 쇠똥불로 부쳐 물고
 양지를 찾아 앉아 옷의 이 잡아낼 때
 아니 빗은 험한 머리 두 귀밑을 덮어 있네.
 내 모습 가련하다 그려내어 보내고자.
 이 모습 흉한 모습 하나라도 그려 보내면
 오늘날 이 고생은 꿈속의 일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편지도 못 전하니
 초수오산 천만편지에 내 그림을 뉘 전하리.
 사랑스럽다 이 별이여. 열었던 몸 녹는구나.
 백년을 쪼여도 싫다고야 하라마는.
 어이하여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애처롭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이 셀까.
 이 밤을 지낸 후에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짧던지
 매일매일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이 생각하고 살뜰히도 애석할 때,
 목숨을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생긴 것 낱알이 헤아려 보니
 모질고도 단단한 것 나밖에 또 있을까.

깊은 산속 백악호 모질기가 나 같으며
 독 깨는 철몽둥이 단단하기 나 같으랴.
 가슴이 터지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완자창을 갖추어
 이같이 답답할 때 여닫어 보고지고.
 어와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찌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고생 돌아올 때 잊었으니
 나 홀로 이 고생 설마 돌아가지 못할까.
 일 하는데 마음 붙여 이 설움 잊자하여
 짧은 낮 손에 쥐고 뒷동산 올라가서
 서리바람 섞어 치는데 모든 나무 쓸쓸하고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에 혼자로다.

곧은 대 베어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한 발 넘는 낚싯대라 좋은 낚시로다.
 청울치 낚시 줄로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샛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잔잔하니
 고기가 물 때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헤진 갯 뒤로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낚시터로 나가가니 내 놀이 한가롭다.
 가깝고 먼 산천이 붉은 햇빛 띄었으니
 넓고 넓은 바다 오로지 금빛이라.
 낚시를 던져두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잡아갈까. 혼자 즐기기 낚시라.
 낚시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백구 다 놀란다.
 백구야 나지마라 너 잡을 나 아니다.
 너 본디 영물이니 내 마음 모르겠나.
 평생에 사랑하던 임을 천리밖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니
 근심이 첩첩하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없는 낚시대를 실없이 던졌으니,
 고기도 안 무는데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모르겠거든 네게 있는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붉은 마음 내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것이다.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갇으려니
 태평한 때 한가로워 너 좇아 예 왔노라.
 나 보고 날지 마라 네 벗이 되오리라.
 백구와 수작하니 떨어지는 해는 아득하다.



낚시대 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강촌으로 돌아 들어 주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갇던 개는 날보고 꼬리친다.
난감한 내 고생이 아마도 오랜 것이다.
갇던 개 아니 갇고 입자도 되는구나.

반나절 잊은 시름 저절로 다시 나니
아마도 이 내 시름 잊을 길 어려워라.
강가에 달이 지고 은하수 기울도록
방안 등은 어디 두고 눈을 감고 앉았는가.
참선하는 노승인가 불경 읽는 맹인인가.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이면서 소경인가 있다.
누운 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임이 오랴.
내 생각은 무슨 생각 이다지 많았을까.
남경 장사 장사하다 반전장사로 밀렸는가.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 다 생각해도
생각을 못 하니 끝없는 생각이로다.
끝없는 미친 설움 누굴 찾아 풀어야 하나.
담배가 벗이 되어 내 설움 위로하니
담배 피고 재를 떨고 다시 담아 불을 붙여
한 무릎에 서너 번을 피어내니
현기증에 두통 나고 설움 잠깐 잊혀져도
오랫동안 잊을 수 있나 홀연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슨 일이고 내가 어이 여기 왔다.
변화한 고향 어디 두고 외딴섬에 들어왔다.
오랑각 어디 두고 두옥반간 의지했다.
안팎 장원 어디 가고 대창문 달았으며
서화도벽 어찌하고 흙벽 되었으며
산수병풍 어디 가고 갈대를 둘렀으며
각장장판 어디 가고 갈자리를 깔았으며
경주탕건 어디 가고 봉두난발 되었으며
버선짝 어디 가고 한쪽에만 신었으며
녹피당혜 어디 가고 육총짚신 신었으며
아침점심 어디 가고 일중하기 어려우며
사환 노비 어디 가고 머슴이 되었을까.

아침이면 마당 쓸기 저녁이면 불 때기
별이 나면 쇠똥말리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 지키기 보리 명식 새 쫓기
좋은 집에 좋은 옷은 나도 전에 하였으나
좋은 음식 맛난 맛은 아마 거의 잊었어라.
설움에 쌓였으니 날 가는 줄 모르더니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 않은 말을 하네.
한 밤 자면 설날 오니 떡국 먹고 놀자 하네.
그 말을 끝이 안 듣고 바람처럼 들었더니
남쪽북쪽 이웃집에 띄치는 소리 들리거늘
손을 꼽아 헤어보니 오늘 밤이 그믐이다.
타향에서 맞는 명절 이 것뿐이 아니로다.
가난한데 아침오니 또 한 해가 되었구나.
송구영신이 이 한 밤뿐이로다.
어와 항상 그랬던가 저녁 밥상 그랬던가.
못 보던 네모 밥상 수저 갖춰 장 김치에
쌀밥이 수북하고 생선 토막 풍성하다.
그래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난 지가 어제인줄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작년 일이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문안 섭섭하다.
부모님의 백발은 얼마나 늘었을까.
아내 방의 꽃과 새는 얼마나 늙었는가.
다섯 살에 떠난 자식 여섯 살이 되었구나.
임이라도 내 설움이 서럽다 할 것이다.
천리 밖에 이별하여 해가 벌써 바뀌도록
집안 소식을 꿈에나 들었을까.
구름산이 막혔는 듯 강바다가 가렸는 듯
의창전 겨울 매화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바닷길 일천리가 멀기도 하지마는
약수 삼천리에 파랑새가 소식 전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나니,
내 집안 소식 어이 하여 이다지 막혔는가.

꿈에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같은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랴.
흐르나니 눈물ियो 짓느니 한숨이라.
눈물도 한이 있고 한숨도 끝이 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노을지고 어촌에 연기 날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웠는고.
산 위의 휘파람은 소 모는 아이로다.
자려는 새도 숲으로 잠을 자러 날아들어
짐승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가.
뵈는 것이 다 서럽고 듣는 것이 다 슬프니



귀먹고 눈 어두워 듣고 보지 말 것이다.
 이 설움 오래 갈 줄 분명히 알 양이면
 할 일은 반드시 만사를 잊는 것이리라.
 나 죽은 무덤 위에 눈을 갈지 밭을 갈지
 한번 죽은 혼백이야 있을는지 없을는지
 옳고 그름을 분별함도 없을는지 있을는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서리 칠지
 하늘 뜻이 의심스워러 알기가 어려워라.
 마디마디 간장이 구비구비 썩는구나.

간밤에 불던 바람 이 산 저 산 비 뿌리니
 구심동군이 봄빛을 자랑하는 듯
 믿음직하네 자연의 이치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지 꽃이로다.
 곳곳에 고운 풀에 봄바람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 보니
 창문 앞의 나무와 꽃 웃는 듯하는구나.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의 봄빛도 저것과 한가지요
 고향의 동산에도 이 꽃이 피었는가.
 작년 이맘때쯤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술잔에 맑은 술 부어 꽃 꺾어 헤아리고
 장진주 노래하여 무진무진 마셔가며
 화려함을 즐기면서 저 꽃을 보았는데,
 올해 지금 눈물 뿌려 보는 꽃은
 아침에 먹은 나쁜 밥 점심 안 되어 시장해지니
 싸구려 잔에 탁한 술도 돈이 없어 먹겠는가.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작년 꽃 올해 꽃 꽃빛은 한 가지나
 작년 사람 올해 사람 사람은 다르구나.
 인생의 고락이 잠깐의 꿈이로다.

이런저런 허튼 근심 다 후려쳐 던져두고
 철에 맞는 옷 그리워하는 눈앞 설움 난감하다.
 한 벌 옷 입은 후에 춘하추동 다 지내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이 많이 추우니 도로 여름 생각하네.
 쓴 것은 망건인가 입은 것은 철갑인가.
 네 계절 여름겨울없이 봄가을만 되었으면
 발꿈치 드러나도 이는 족히 견디어도
 바지 밑 터졌으니 이 아니 민망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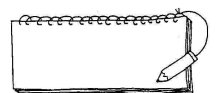
내 손수 김자하니 기울 것 전혀 없네.
 애꿎은 실이로다. 이리 엮고 저리 엮고
 고기 그물 걸어 맨 듯, 평의 눈 짝어낸 듯
 바느질도 형편없고 솜씨도 대단하다.
 예전까지 적던 밥 크게 된 것은 어쩐 일인가.
 굶주린 범 가재 먹듯 밥 한 그릇 먹어치우네.
 조반석죽이면 부잣집 늙은이 부러우랴.
 아침은 죽이더니 저녁은 그도 없네.
 못 먹어 배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기져 눈 들어가니 뒤통수로 나오는 듯
 정신이 아득하니 구름안개 쌓였는가.
 한 되 밥 얼른 지어 실컷 먹고 싶어.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천고만상 아무런들 어찌하리.
 의복이 넉넉하면 예절을 알 것이고
 굶고 배고프면 염치를 모르나니
 궁무소불위란 옛사람의 말한 것이라.

사불관면은 군자의 예절이요
 기불탁속은 장부의 염치로다.
 거센 바람 분 후에야 강한 풀을 알게 되니
 가난할수록 굳세어 벼슬에는 뜻이 없어
 삼순구식을 먹건 못 먹건
 십년일관을 쓰건 못 쓰건 간에
 염치를 모를 것인가 예절을 바랄 것인가.
 내 생애 스스로 벌여 구차함을 면하러니
 처음에 못 하던 일 나중에는 다 배우는구나.
 돛자리를 먼저 만들자. 틀을 꽃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뿔내면서 베틀을 들어놓으니
 두 어깨 무너지고 팔과 목이 부러진다.
 명석 값 한 잎 들어 다섯 푼에 팔았구나.
 약한 근력 기운 내어 부지런을 떨어보니
 손뿌리에 피가 나서 종이 골무에 피어린다.
 실 같은 남은 목숨 꿰음 직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사람 목숨 소중함을 이제와 알 리로다.
 누가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 하니
 내 설움 오래 살면 화약이 아니 될까.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이로다.
 작년에 베던 보리 올해 고쳐 베어 먹고
 지난여름 낫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



뛰든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설움도 남에게는 없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년이라.
 흥함이 길함 될까 고진감래 언제 올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운 원망 비나이다.

달력도 해 묵으면 다시 쓰지 아니하고
 노여움도 밤에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한 해 일도 다 묵었고 사람 일도 묵었으니
 천만 일들 죄 씻어주고 그만 저를 용서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고쳐 잇게 하옵소서.





제 7 강

相思別曲(상사별곡)

인간리별(人間離別) 만사중(萬事中)에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썩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너 진정(眞情) 제 뉘라서 짐작하리
 미친 시름 허튼 근심 다 후루허 더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자나 임 못보와 가슴답답
 열인 양자(樣子) 고은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듯고지고 임의 소리
 비닉이다 하날님의 님 생기라 비나이다.
 전생(前生) 차생(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두리 삼겨나서
 잊지마자 처음 빙세 죽지마자 백년기약(百年期約)
 천금(千金)같이 믿었드니 세상일에 마(魔)가 많다.
 천금주옥(千金珠玉) 귀 밧기오 세상빈부(世上貧富) 관겨하라.
 근원(根源)¹⁾ 흘러 물이 되어 깊고깊고 다시 깊고
 스랑 무어 뵈히 되야 눅고눅고 다시 눅하
 문허질줄 모로거든 쓴허질줄 제뉘알니
 일조낭군(一朝郎君) 이별후의 소식(消息)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날올까 내일(來日)올까 그린지도 오릭거라
 일월무정(一月無情) 절노 가니 옥안운발(玉顔雲髮)²⁾ 공로(空老)로다
 이별이 불이되어 태우느니 간장(肝腸)이다
 나며들며 빈 방안에 다만 혼숨 쉼이로다
 인간리별(人間離別) 만사중(萬事中)의 날 갓툃이 쏘 이슬가
 바람부러 구름되야 구름 썬 저문날의
 나며들며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안저
 임 계신디 바라보니 이너 상사(相思)허사(虛事)로다
 공방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思)가 네로붓터 이러혼가
 님 스랑 흐는 굿티 임도 날을 싱각는가
 날 스랑 흐는 썬티 눅 스랑 흐려는가
 만첩청산(萬疊靑山) 들어간들 어니랑군 날 찾으리
 산은첩첩 고개되고 물은 충충 소이로다
 오동추야(梧桐秋夜)³⁾ 밝은 달에 님 생각이 새로왜라
 무정(無情)하여 그러혼가 유정(有情)하여 이러혼가
 산계야목(山鷄野鶩)길을 쓰려 도라올줄 모로는가⁴⁾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더욱 썩다.
 그리워도 못 보는 이 내 마음 그 뉘 알까.
 맺힌 시름 허튼 근심 다 후려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리는 모습 고운 소리 눈에 아른 귀에 쟁쟁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지고 임의 소리
 비나이다 하나님께 임 만나길 비나이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 말자 처음 맹세 죽지말자 백년기약
 천금같이 믿었는데 세상일에 험살 많다
 금은 보화 귀 밖이요, 세상 빈부 관계하라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뵈히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아
 무너질 줄 몰랐는데 끊어질 줄 그 뉘 알리.
 하루아침 이별한 후 소식조차 끊겼으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린 지도 오래이라
 세월이 절로 가니 고운 모습 헛났었네.
 이별이 불이 되어 태우느니 간장이다.
 나며 들며 빈 방안에 다만 한 숨뿐이로다.
 인간이 별 만사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바람 불어 구름 되어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 들며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앉아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그리움 헛일이다.
 빈방의 미인 홀로 예로부터 이러한가.
 내가 사랑하는 끝에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날 사랑 하던 끝에 남 사랑하는가.
 첩첩 산에 들어간들 어느 낭군 날 찾으리.
 산은 첩첩 고개 되고 물은 충충 못이로다.
 오동추야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무정하여 그러한가, 유정하여 이러한가.
 들오리를 길들여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1)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과 사랑

2)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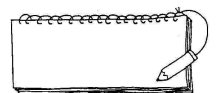
3)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밤

4) 산꿩과 들오리같이 길들여지지 않던 임을 다른 여자가 길들여 놓아주지 않음.



노류장화(路柳牆花)¹⁾ 썩거 쥐고 춘색(春色)²⁾으로 단기느가
 가는길 자취업서 오는길 무디거다
 혼번 죽어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오리
 옛 정(情)이 잇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꽃 버들을 꺾어 쥐고 주색으로 다니는가.
 가는 길에 흔적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리.
 옛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하소서.



1)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으로 주로 기생을 뜻함.

2) 술과 여색.



제 8 강

견여탄¹⁾(肩輿歎)

정약용(丁若鏞)

사람들이 가마타기 좋은 줄만 알고
 가마 메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가마 메고 높은 비탈을 오를 적엔
 빠르기가 산 오르는 사슴과 같고
 가마 메고 낭떠러지를 내려갈 적엔
 우리로 돌아가는 양처럼 쏜살같으며
 가마 메고 깊은 구덩일 뛰어넘을 땐
 다람쥐가 달리며 춤추는 것 같다오
 바위 곁에선 살짝 어깨를 낮추고
 좁은 길에선 민첩하게 다리를 꼬기도
 절벽에서 깊은 못을 내려다보면
 놀라서 뉘이 달아날 지경이건만
 평탄한 곳처럼 신속히 달리어라
 귓구멍에 썩썩 바람이 이는 듯하니
 이 때문에 이 산에 노닐 적엔
 이 낙을 반드시 먼저 꼽는다오
 멀리 돌아서 관첩²⁾을 얻어 오는데도
 역속들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데
 더구나 너희야 역마 타고 부임하는
 한림학사를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통솔하는 아전은 채찍과 매를 쥐고
 우두머리 중은 대오를 정돈하여
 영접하는 뎨 시한을 어기지 않고
 가는 데는 엄숙히 서로 뒤따라서
 험한 곳은 숨소리는 여울 소리에 섞이고
 땀국은 현 누더기에 흠뻑 젖누나
 움푹 팬 곳 건널 땐 옆 사람이 받쳐 주고
 험한 곳 오를 땐 앞사람이 허리 굽히네
 새끼에 눌러 어깨엔 흠이 생기고
 돌에 부딪쳐 멍든 발은 낫지를 앓네
 스스로 고생하여 남을 편케 함이니
 당나귀나 말과 다를 것이 없구나
 너와 나는 본시 같은 민족으로서
 하늘의 조화를 똑같이 타고났건만

人知坐輿樂
 不識肩輿苦
 肩輿上峻阪
 捷若躋山麋
 肩輿下懸嶠
 沛如歸莛殺
 肩輿超谿澗
 松鼠行且舞
 側石微低肩
 窄徑敏交股
 絕壁頻黜潭
 駭魄散不聚
 快走同履坦
 耳竅生風雨
 所以游此山
 此樂必先數
 紆回得官帖
 役屬遵遺矩
 矧爾乘傳赴
 翰林疇敢侮
 領吏操鞭扑
 首僧整編部
 迎候不差限
 肅恭行接武
 喘息雜湍瀑
 汗漿徹襤褸
 度虧旁者落
 陟險前者偃
 壓繩肩有癢
 觸石跼未癒
 自瘁以寧人
 職與驢馬伍
 爾我本同胞
 洪勻受乾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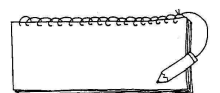
1) 가마꾼의 탄식.

2)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네 어리석어 이런 천역을 감수하니	汝愚甘此卑
내가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吾寧不愧慚
나는 너에게 덕 입힌 것 없는데	吾無德及汝
어찌 너희 은혜만 받는단 말이나	爾惠胡獨取
형이 아우를 불쌍히 안 여기면	兄長不憐弟
부모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겠는가	慈衷無乃怒
중의 무리는 그래도 괜찮거니와	僧輩猶哿矣
저 산 밑의 민호들이 애처롭구나	哀彼嶺下戶
큰 지렛대 쌍마의 가마에다가	巨槓雙馬輜
온 마을 사람들은 복마꾼 참마꾼으로 동원하네	服驂傾村塢
개와 닭처럼 마구 몰아대니	被驅如犬鷄
으르는 소리 시호 ¹⁾ 보다 고약하도다	聲吼甚豺虎
가마 타는 덴 옛 경계가 있는데도	乘人古有戒
이 도리를 분토처럼 버린지라	此道棄如土
김매던 자는 호미를 놓아 버리고	耘者棄其鋤
밥 먹던 자는 먹던 밥을 뱉고서	飯者哺而吐
아무 죄 없이 꾸짖음을 당하면서	無辜遭嗔喝
만 번 죽어도 머리만 조아리어	萬死唯首俯
가까스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顛顛既踰艱
어허, 그제야 노략질을 면하도다	噫吁始贖擄
가마 탄 자 한마디 위로도 없이	片言無慰撫
호연히 일산 드날리며 떠나가거든	浩然揚傘去
힘이 다 빠진 채 밭으로 돌아와선	力盡返其畝
실낱 같은 목숨 시름시름하누나	呻唸命如縷
내 이 때문에 견여도를 그려 내어	欲作肩輿圖
돌아가 임금님께 바치려고 하노라	歸而獻明主

1) 승냥이와 여우.





제 9 강

南塘詞 十六絶 (남당사 16절)

(해 제)

다산은 강진 유배 시절에서 소실 정씨(鄭氏)를 두었고, 홍임(紅任)이란 딸까지 낳았다. 정씨는 다산이 처음 머물던 강진 주막집 노파의 딸로 본래 과수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다산이 초당에 살았던 10여 년 동안 다산을 지극하게 모셨다. 그러다가 다산이 18년간의 유배가 풀려 본가인 경기도 광주 마현(馬峴)으로 돌아갈 때, 정씨는 홍임과 함께 다산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정씨는 다산의 정실부인 홍씨에게 내침을 당하였다. 다산은 정씨 모녀가 마현에서 쫓겨날 때, 양근(楊根) 사람 박생(朴生)을 시켜 이들 모녀를 남당(南塘)의 친정으로 보냈다. 하지만 박생이 정씨의 절개를 꺾으려 하자, 그녀는 남당으로 가지 않고 강진의 다산의 옛 거처로 돌아갔다.

정씨는 그곳에서 날마다 연못과 누대와 꽃나무 주변을 서성이며 근심, 원망,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였는데, 이것이 「南塘詞(남당사)」이다. 「남당사」에 대해 임형택 교수는 정씨의 이야기를 듣고 다산의 강진 제자가 지은 것으로 보았으나, 정민 교수는 다산이 직접 지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南塘詞(남당사)」는 서문과 16수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 서 문 >

다산의 소실이 내침을 당하여 양근의 박생이 가는 길에 붙여 남당의 본가로 돌아가게 하였다. 박생이 호남 장성부에 도착하여 부호 김씨와 몰래 모의하여 [그녀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알고 크게 통곡하였다. 마침내 박생과 단절하고 남당의 본가로 가지 않고 바로 금릉으로 갔다. 다산이 예전 머물던 곳으로 가서 날마다 연못, 누대, 꽃나무 사이를 서성이며 시름과 원망과 그리움에 의지하여 사니 금릉의 악소배들도 감히 다산을 한 발짝도 넘보지 못하였다. [내가] 듣고서 몹시 슬퍼 마침내 「남당사」 16절을 지었다. 가사는 모두 여심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도 부풀린 말은 없다. 읽는 이들이 살필지니.

茶山小室，遭逐，順付楊根朴生行，歸南塘本家。

朴生到湖南之長城府，與富金陰議奪志，覺之大發哭。

遂與朴決絕，直走金陵，不之南塘本家。

之茶山舊住，日盤桓池臺花木，以寓愁 思怨慕，金陵惡少，不敢窺茶山一步地。

聞甚悲惻，遂作南塘詞十六絶，詞皆道得女心出，無一羨語，覽者詳之。



1.

南塘江上是儂家 남당강상시농가
底事歸依舊住茶 저사귀의구주다
欲識郎君行坐處 욕지낭군행좌처
池邊猶有手裁花 지변유유수재화

남당의 물가가 바로 우리 집이지만
어인 일로 다산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나.
낭군께서 사시던 곳 자취를 찾아보니
연못가에 손수 가꾼 꽃이 피어 남아 있네.

2.

南塘兒女解舟歌 남당아여해주가
夜上江樓弄素波 야상강루농소파
縱道商人輕遠別 종도상인경원별
商人猶見往來多 상인유현왕래다

남당의 아씨는 뱃노래를 부르면서
강 누각에 밤에 올라 흰 물결 희롱하네.
장사치는 먼 이별도 쉽게 한다지만
장사치는 오히려 왕래라도 자주 하지.

3.

思歸公子我心悲 사귀공자아심비
每夜心香上格之 매야심향상격지
那知舉室歡迎日 나지거실환영일
反作兒家薄命時 반작아가박명시

떠날 생각만 늘 하던 입, 내 마음 슬펐어라.
밤마다 입의 마음 고향 하늘로 향했구나.
어이 알았으리. 입을 맞아 기뻐하던 날
오히려 아씨 집은 박복하게 되었으니.

4.

幼女聰明乃父如 유녀총명내부여
喚爺嘖問盍歸歟 환야제문합귀여
漢家猶贖蘇通國 한가유속소통국¹⁾
何罪兒今又謫居 하죄아금우적거

어린 딸 총명함이 제 아비와 닮았기에
아비 찾아 울면서 왜 안 오냐 묻는구나.
한 소제는 소통국을 속량하여 왔는데
무슨 죄로 어린 아이 또 유배를 산단 말인가.

5.

刑足丁家斷臂金 월족²⁾정가단비³⁾김
敎人強暴怨何深 교인강포원하심
那知再遇化兒戲 나지재우화아⁴⁾희
楊朴歸來表此心 양박귀래표차심

정씨 댁서 버림 받고 칼로 몸을 지켰으나
사람 시켜 강포하니 원망 어이 깊지 않으리.
어이 알았으리. 못된 장난 다시 만날 줄
양근 박씨와 돌아올 제 이 마음을 보일 줄을.⁵⁾

1) 소통국은 한 소무가 19년 동안 흉노에 잡혀 있을 때, 흉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소무가 한나라로 돌아온 다음 흉노에 몸값을 주고 한나라로 데려 왔다고 함.

2) 월족(刑足)은 진나라 때 발뒤꿈치를 자르던 형벌.

3) 단비(斷臂)는 왕웅(王凝)의 처 이씨가 다른 남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자신의 손목을 잘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

4) 화아(化兒)는 세상일이 조화를 부린다는 부정적 의미이다.

5) 마현에서 돌아올 때 동행한 양근의 박씨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몸을 지켰음.



6.

機梭刀尺不關心 기사도척불관심
無事挑燈夜已深 무사도등야이심
直到五更鷄唱罷 직도오갱계창파
和衣投壁自呻吟 화의투벽자신음

베짜기와 바느질은 마음에 두지 않고
일없이 등불 돋우니 밤은 이미 깊었구나.
곧 오경에 이르러서 닭 울음 그쳐서야
옷 입은 채 벽에 기대 혼자서 신음하네.

7.

絕代文章間世才 절대문장간세재
千金一接尙難哉 천금일접상난재
寒鴉配鳳元非偶 한아배봉원비우
菲薄心知過福災 비박심지과복재

절대의 문장에다 세상 드문 재주시니
천금 쥐도 한 번 만남 오히려 어려우리.
까마귀 봉황 배필 원래 짝이 아니거니
천한 몸의 과한 복이 재앙될 줄 알았다오.

8.

土木心肝另石人 토목심간령석인
寬穿今古竟難倫 관천금고경난륜
破菱縱絕重圓望 파릉종절중원망
忍斷君家父子親 인단군가부자친

마음이 흙 나무인지 돌로 된 사람인지
이전부터 이어와서 짝하기 어려워라.
깨진 거울 둥글게 할 가망은 없겠지만
부녀간의 애틋한 정 어이 차마 끊었을까.

9.

殘粧墮髻畏人窺 잔장타계외인규
宜笑宜顰只自知 의소의빈지자지
莫是郎心猶縈戀 막시낭심유권련
半床時有夢來時 반상시유몽래시

얼룩 화장 떨어 비녀 남이 볼까 두려우니
웃다가 찡그림은 다만 홀로 아는구나.
그래도 낭군 마음 다정함이 남았다면
이따금 꿈에라도 반쪽 침상에 올는지요.

10.

水阻山遮雁亦疎 수조산차안역소
經年不得廣州書 경년부득광주서
將兒此日千般苦 장아차일천반고
思得兒郎未放初 사득아랑미방초

물 막히고 산이 가려 기러기도 오지 않아
해 지나도 광주 편지 받아보질 못했구나.
아씨는 이날에도 천만 가지 괴로움에
낭군이 떠나시기 전의 일만 생각하네.

11.

并刀三尺決心胸 병도삼척결심홍
胸裡分明見主公 홍리분명견주공
縱有龍眠摹畫筆 종유용면¹⁾모화필
精誠自是奪天工 정성자시탈천공

석자 칼로 그어내어 이 가슴 열어 젖혀
가슴 속 임의 모습 또렷하게 보이리라
용면의 솜씨인들 그려낼 수 있으리오.
정성으로 저절로 하늘 솜씨 빼앗으리.

1) 용면(龍眠)은 북송의 유명한 화가 이공린.



12.

紅橋村西月出山 홍굴촌서월출산
山頭石似望人還 산두석사망인환
此身萬死猶餘恨 차신만사유여한
願作山頭一片頑 원작산두일편완

홍굴촌 서쪽에는 월출산이 솟았는데
산머리 바위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이 몸 만 번 죽는대도 남은 한이 있으리니.
원컨대 저 산머리 바위처럼 되었으면.

13.

崦嵫日色爲君悲 엄자¹⁾일색위군비
恨不相逢未老時 한불상봉미로시
縱乏膠漆烏兔術 종핍교침오토²⁾술
忍將餘景做生離 인장여경주생리

엄자산 햇빛마저 그대 위해 슬퍼하니
늙기 전에 만나보지 못함이 한스럽네.
해와 달을 묶어두는 재주 설령 없다 해도
남은 세월 생이별을 차마 어이 견딜거나.

14.

孤館無人抱影眠 고관무인포영면
燈前月下舊因緣 등전월하구인연
書樓粧閣依稀夢 서루장각의희몽
留作啼痕半枕邊 유작제흔반침변

외로운 집 사람 없어 그림자를 안고 자니
등불 앞 달빛 아래 옛 인연이었구나.
서루와 침실이 꿈처럼 희미한데
베갯머리 울던 흔적 그대로 남았어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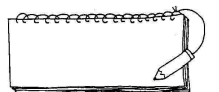
南塘春水自生煙 남당춘수자생연
渚柳汀花覆客船 저류정화복객선
直到天涯通一路 직도천애통일로
載兒行便達牛川 재아행편달우천³⁾

남당의 봄물에 안개가 절로 일고
물가의 버들 꽃이 떠나는 배 덮는구나.
곧장 가서 하늘가의 큰 길로 통한다면
가는 편에 아이 실어 우천에 닿을 텐데.

16.

南塘歌曲止於斯 남당가곡지어사
歌曲聲聲絕命詞 가곡성성절명사
不待南塘歌曲奏 부대남당가곡주
負心人自負心知 부심인자부심지

남당의 노래 곡조 여기서 그치리니
목숨이 마디마다 끊어지는 소리이네.
남당의 노래를 들을 것 있겠는가,
마음 등진 사람이야 저버린 마음 알 것이니.



1) 엄자(崦嵫)는 중국의 산 이름으로, 예전에는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였음.

2) 오토(烏兔)는 다리가 셋이 달린 까마귀가 사는 해와, 토끼가 사는 달로 해와 달, 곧 세월을 뜻함.

3) 다산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물길



제 10 강

유산가(遊山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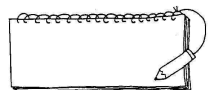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花芳暢)이라,
 석 도타 벗님네야 산천경기(山川景概)를 구경가세
 죽장망혜단표즈(竹杖芒鞋單瓢子)로
 천리강산(千里江山)을 구경가세
 만산홍록(萬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뛰여
 춘식(春色)을 자랑노라 식식(色色)이 붉었는디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하고
 기화요초란만중(奇花瑤草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업시 나라든다
 류상잉비(柳上鸚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도홀시고
 도화만발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유축슈익산춘(魚舟逐水愛山春)이어던
 무릉도원(武陵桃源)니 예 아니나
 양류세지스스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황산곡이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나
 제비는 물을 차고 기력이 물이져서
 거지 중턴(中天)에 눕피 써서 두 나리 월신 펴고
 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눕히 써
 천리강산(千里江山) 머나먼 길에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야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 부러져 광풍(狂風)에
 흥(興)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層巖絕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쌀쌀
 슈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흐드러진 봄꽃무리 성마다 화려한데
 온 세상 만물들은 한창 제 빛 자랑하네.
 때 좋다 벗님들아, 산천 경치 구경 가세.
 대지팡이 짚신 신고 표주박 하나 들고
 멀리 먼 천리 강산 속으로 구경 가세
 붉은 꽃 푸른 잎은 가득히 산을 채워
 일 년 만에 찾아 온 새 봄에 다시 피어
 봄빛을 자랑하러 색색이 붉었는데,
 푸른 솔과 푸른 대는 울창하게 무성하고,
 고운 꽃 기이한 풀 가득가득 피었을 때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버들 위 나는 피꼬리는 조각조각 금빛이요,
 꽃 속 나비 춤출 때는 가루가루 눈 날리는 듯.
 지금이야 봄이로다. 계절이 좋을시고.
 복숭아 꽃 만발하여 점점이 붉었는데
 고깃배는 물을 따라 산 속 봄을 즐기러니
 무릉이 어디인가, 여기기 별천지로세.
 버드나무 가지마다 푸르게 늘어졌는데
 황산 땅 골짜기에서 봄을 맞이하던
 도연명의 버드나무 다섯 그루 예 있구나.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저서
 푸른 하늘 높이 떠서 두 나래 활짝 펴고,
 흰 구름 가운데로 펄펄펄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같까 슬피 운다.
 먼 산은 첩첩하고, 태산은 주춤하며,
 기암은 층층하고, 장송은 늘어져서
 에이 구부러져 미친 듯한 바람 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층한 절벽 위로 폭포수는 팔팔 내려,
 수정 발을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이 쓸쓸
 열에 열 골 물이 혼딴 합수(合水)하야
 텃방(天方)저 디방(地方)저
 소코라지고 평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오르령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갓치 훗터지니
 소부허유(巢夫許由)가 문답(問答)하던
 괴산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주각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오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락도(日出落照)가
 눈 압헤 버려나 경기무궁(景概無窮) 도흘시고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쓸쓸하여
 열 골짜기 물이 한데로 모여 흘러 내리니
 하늘로 향하는 듯, 땅으로 향하는 듯
 솟는 듯 가라앉는 듯, 넉쿨인 듯 방울인 듯,
 저 건너 병풍석으로 오르령 팔팔하며
 흘러가며 은구슬처럼 부서지며 흩어지니,
 소부가 허유가 귀를 씻고 소먹이며
 세상 떠나 숨어 살던 기산 영수 예 아니냐.
 주각새 울음소리 태고처럼 한가롭고
 소쩍새 울음소리 한해 풍년 기원하네.
 해 뜨고 해 지는 멋들어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경치 무궁 좋을시고.





제 11 강

雇工歌(고공가)

許塏(허전)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로느냐.
 비오는 날 일 업슬지 솟꼬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아버지 사름스리 허려 홀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썬고 터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서리 보습 장기 쇼로 田畝(전답)을 起耕(기경)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𠵿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큰나 자그나 동웃시 죠코 즈나,
 ㅁ음을 ㅈ호는 ㅈ 호슈을 ㅅ오는 ㅈ,
 무슴 일 감드려 흘깃할것 허느슨다.
 너희넝 일 아니코 時節(시절) 좇츠 스오나와,
 ㅈ득의 ㅈ 세간이 ㅈ러지게 되야는되,
 엇그제 火强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허나 불타 붓고 먹을 썰시 전혀 업다.
 크나큰 歲事(세사)을 엇지하여 니로려료.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ㅅㅁㅁ을 ㅅㅅ어슬라.

너희넝 절머는다 험 혈나 아니슨다.
 ㅅ 소퓷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ㅅ ㅁㅁ ㅅ ㅅㅅ으로 ㅅㅅ을 지어스라.
 ㅅ 집이 가을 열면 옷밥을 分別(분별)하라.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몰니.
 밭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더져두고,
 날 도흔 호미로 기음을 ㅅㅅ아스라.
 山田(산전)도 ㅅㅅ르겇고 무논도 기워간다.
 사릅피 ㅁㅁ 나셔 ㅅㅅ 겨ㅅ 세울세라.

우리 집 옷과 밥을 얻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말하리라.
 처음에 조상님들 살림살이 시작할 때,
 어진 마음 베푸시니 사람들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갈았으니,
 올벼논과 텃밭을 여드레만에 갈았구나.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했다.

저희들이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밥그릇이 크다 작다 입은 옷이 좋다 나쁘다
 마음을 다투는 듯 어른을 시기하듯,
 무슨 일에 감아들어 서로 흘깃 하는구나
 너희들 일 아니해 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강도 만나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에 타고 먹을 것은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살이 어떻게 세우려나?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너희는 젊다 하여 생각조차 아니하냐?
 한 술에 밥 먹으며 매양 다투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구나.
 한 집이 부유하면 옷과 밥이 인색하랴?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구나.
 산밭도 거칠고 무논도 무성하다.
 도롱이를 말뚝 입혀 벼 곁에 세우거라.



七夕(칠석)의 호미 씻고 기움을 다 댈 후의,
 솟꼬기 뉘 잘하며 섬으란 뉘 엇그랴.
 너희 지조 세아려 자라자라 맞스랴.
 스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랴.
 짐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네 무더랴.
 너희 지조를 내 斟酌(짐작)하엿노랴.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하려므나.
 명석의 벼를 년들 도흔 히 구름 끼여
 벼뉘을 언지 보랴.
 방아를 못 씨거든 거즈나 거춘 오려,
 옥곳튼 白米(백미)될 줄 뉘 아라 보리스니,

너희네 드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디,
 너희네 귀는 업서 저런줄 모르판디,
 화살을 전혀 언고 옷밥만 닷토는다.
 너희네 다리고 틱는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춘 저녁 더 하다 먹엇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하려하니,
 험 혜는 새 들이리 어니제 어더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이드라하며셔 샷 혼 소리 다 꼬패랴.

칠월 칠석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는 누가 잘 꼬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 재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추수를 한 후에는 집 짓는 일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네가 묻어라
 너희 재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 깊이 생각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년들 좋은 해 구름 가려
 햇볕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쪼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
 옥같이 흰 쌀 될 줄 누가 알아 보겠는가?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는 귀는 없어 그것을 모른다고
 화살 준비 생각 않고 옷밥만 다투느냐?
 너희들이 추운가 주리는가 염려하여
 죽조반 아침저녁 다 지어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안 일 맡겨두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았구나.



雇工答主人歌(고공답주인가)

李元翼

어와 저 양반아 도라안자 내 말 듯소
 엇지흔 저문 소니 험업시 단니순다
 마누라¹⁾ 말숨을 아니 드리 보느순다
 나는 일얼탄덩 外房(외방)의 늙은 토이
 공밧치고 도라갈직 흐는 일 다 보았넌
 우리 툇 세간이야 네뵈터 이러튼가
 田民(전민)이 만탄 말리 一國(일국)에 소리나데
 먹고 입는 드난중이
 百餘口(백여구) 나마시니 므숨 일 흐노라
 터밧출 무겨논고 農場(농장) 업다 흐는가
 호미연장 못갓던가
 날마다 무슴흐려 밥먹고 단기면서
 열나모 亭子(정자) 아리 낮잠만 자느순다
 아히들 타시런가
 우리 툇 종의 버릇 보거든 고이흐데
 쇼먹이는 으히드리 상마름을 凌辱(능욕)흐고
 進止(진지)흐는 어린 손넌
 하 계대를 기롱흐다
 썩썩을 除給(제급) 못고 에에고 제 일 흐니
 흔 집의 수한 일을 뉘라서 심썩 홀고
 穀食庫(곡식고) 비엿거든 庫直(고직)인들 어이 흐며
 세간이 흐터지니 뉘자헌들 어이 홀고
 내 윈 줄 내 몰나도 남 윈 줄 모를넌가
 플치거니 밋치거니 할거니 돕거니
 흐로 열두 썩 어수선 핀거이고
 밧별감 만하 이스
 外方(외방)舍音(사음) 都漣化(도달화)²⁾도
 제 所任(소임) 다 바리고 몸 싣릴 썩이로다
 비식여 셔근 집을 뉘라서 곯쳐 이며
 옷 버서 무너진 담 뉘라서 곯쳐 쥘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찬 誰何(수하)上直(상직) 뉘라서 심썩 홀고
 큰니 큰 기움 집의 마누라 혼즈 안자
 괴걸을 뉘 드르며 論議(논의)을 놀라 홀고
 낮시름 밤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어와 저 양반들아 돌아 앉아 내 말 듣소.
 어찌하여 젊은 손님 생각 없이 다니는가.
 마누라*의 말숨을 아니 들어 보았는가.
 나는 이러해도 바깥의 늙은 종이
 공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네.
 우리 집 살림이 예로부터 이랬던가.
 농민이 많단 말이 나라에 소문나도
 잘 먹고 잘 입으며 머슴살이 하는 종이
 백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텃밭은 묵혀 놓고 농장이 없다 하네.
 호미 연장 못 갖추었나.
 날마다 무엇 하며 밥만 먹고 다니면서
 나무 그늘 정자 아래 낮잠만 자고 있나.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집 종의 버릇 보자 하니 괴이하네.
 쇼먹이는 아이들은 상마름을 능욕하고
 쓸데없이 오고가는 어리석은 손님들은
 큰 양반을 희롱하나.
 물건을 빼돌리고 꾀를 피워 제 일 하니
 큰 집의 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 것인가.
 곡식 창고 비었는데 창고지기 어찌 하며
 세간 살림 흩어지니 그릇인들 어찌 할까
 자신 잘못 모르는데 남의 잘못 어찌 알까.
 풀었다가 맺었다가 헐뜯다가 도왔다가
 하루 열두 시간 어수선 핀 격이고
 하인들도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버리고 몸만 사릴 뿐이로다.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뉘라서 고치겠나.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쓸 것인가
 불한당 구멍 도적 멀리 가지 않았는데
 화살 찬 상직군은 누가 힘써 할 것인가.
 크나크게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명령을 누가 듣고 뉘와 함께 의논할까.
 낮 근심 밤 시름을 혼자 맡아 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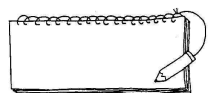
1) 상전,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2) 달화주, 공노비를 부리지 않는 대신에 그 종에게서 세급 받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옥 굵튼 얼굴리 편하실 적 먼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흘서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님 항것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뉘을 보려 민망하야 솟느이다
 솟소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 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賞罰(상벌)을 벌키시고
 賞罰(상벌)을 벌키거든 어름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흐시면 家道(가도) 절노 닐니이다.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 집이 이리 된 것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않겠지만
 돌이켜 헤아리니 마누라 탓이로다.
 내 주인 잘못된 건 종의 죄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민망하여 여쭙건가.
 새끼 꼬는 일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소.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름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면 가도 절로 일어나리이다.





제 12 강

汾川講好歌(분천강호가)

李叔樸(이숙량)

父母俱存(부모구존) 헝시고 兄弟無故(형제무고) 호몰
 늙대되 닐오되 우리 지비 굿다터니
 어엿븐 이 내 호모몬 어디갓다가 모르노

부모님 살아 계시고 형제들 무고함이
 남들이 이르기를 우리 집에 갖추었다더니
 가엾은 이 내 한 몸은 어디 갔다 모르노.

父母(부모)님 겨신 제는 父母(부모)님주를 모르더니
 父母(부모)님 여윈후에 父母(부모)님줄 아로라
 이제사 이 막숨 가지고 어디다가 베프료

부모님 계실 제는 부모인 줄 모르더니
 부모님 여윈 후에 부모인 줄 알겠더라.
 이제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에다 베풀런고.

디난 일 애 드디 말오 오는 날 힘써 스라
 나도 힘 아니써 이리곰 애드노라
 닉일란 브라디 말오 오늘 나를 앓겨스라

지난 일 애달지 마오, 오는 날 힘써 살게.
 나도 힘 아니 써 이렇게 애달프네.
 내일은 바라지 마오, 오늘 나를 아끼게나.

兄弟(형제) 열히라도 처어몬 호모미라
 헝나히 열힌 주를 뉘아니 알리마는
 엇더더 욱시메 곁여 호모민 주를 모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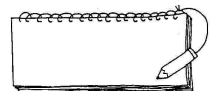
형제 열이라도 처음은 한 몸이라.
 하나가 열인 줄을 뉘 아니 알리마는
 어찌한 욱심에 곁려 한 몸인 줄 모르노.

점더니 늘거가고 늘그니 저서가네
 우리 종조기 쏘 며치 인논고
 이제나 잡 막숨 업시 혼잔 수를 눈화먹새

젊더니 늙어가고 늙은이 적어 가네.
 우리 친족이 또 몇이나 남았는가.
 이제나 이 마음 없이 한잔 술을 나눠 먹세.

功名(공명)은 在天(재천)헝고 富貴(부귀)는 有命(유명)헝니
 功名富貴(공명부귀)는 히므로 못헝려니와
 내타난 孝悌忠信(효제충신)¹⁾이쑤 어닉 히를 빌리오

공명은 하늘에 있고 부귀는 운명이니
 공명부귀는 힘으로 못하려니와
 나타난 효제충신이야 어느 힘을 빌리오.



1) 효도·우애·충성·신의



제 13 강

蘆溪歌 (노계가)

朴仁老(박인로)

白首(백수)에 訪水 尋山(방수심산)
 太晚(태면)흔 줄 알것마는
 平生 素志(평생 소지)를 뵈고야 말라 너겨
 赤鼠(적서)¹⁾ 三春(삼춘)에 春服(춘복)을 새로 입고
 竹杖芒鞋(죽장망혜)로 蘆溪(노계) 깃흔 골이
 헝혀 마참 차즈오니
 第一江山(제일강산)이 넘적 업시 브려느다
 告往今來(고왕금래)예
 幽人 處士(유인처사)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 地秘(천간 지비)²⁾헝야
 늑를 주랴 남것췌다
 躊躇 良久(주저 양구)타가
 夕陽(석양)이 거원 적의
 陟彼 高岡(척피 거강)³⁾헝야 四隅(사우)로 도라보니
 玄武 朱雀(현무 주작)⁴⁾과 左右 龍虎(좌우 용호)⁵⁾도
 그린듯시 ㄴ갓고야
 山脈(산맥) 밋친 아릿
 藏風 向陽(장풍 향양)⁶⁾헝터
 靑蘿(청라)를 허리 드러 數椽 蝸室(수연 와실)⁷⁾을
 背山臨流(배산임수)헝야
 五柳邊(오류변)⁸⁾에 디여 두고
 斷岸千尺(단애천척)이 거던 龍(용)이 머무는듯
 江頭(강두)에 들것거늘 草草亭(초초정) 헝두 間(간)을
 구름 췌 긴 술아리 바휘 디켜 여러너니
 天態萬狀(천태만상)이 아마도 奇異(기이)코야
 峯巒(봉만)은 秀麗(수려)헝야 富春山(부춘산)⁹⁾이 되야 잇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헝야 七里灘(칠리탄)¹⁰⁾이 되야거든
 十里明沙(십리명사)는 三月(삼월)눈이 되엿느다

흰 머리에 물을 찾고 산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에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겠노라
 병자년 삼월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대지팡이 짚신 신고 노계의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졌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숨어사는 선비들이 많이도 있었지만
 하늘이 숨겨두고 땅이 감추었으니
 내게 주려 남겼구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머물다가
 저녁놀이 다해갈 때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산줄기는 현무 주작, 산세는 청룡 백호
 그림처럼 갖추었네.
 산줄기 이어지다 뻗혀있는 아래에다
 바람을 가둬두고 햇빛을 향한 곳에
 푸른 덩굴 걷어내고 두어 서까래 작은 집을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안아
 다섯 버들 늘어진 물가에 지었으며,
 깎아지른 천 길 절벽에 날던 용이 머무는 듯
 강나루를 두른 곳에 초초정 한 두 칸을
 구름 췌 긴 술 아래 바위 기대 지어내니
 천만 가지 모습들이 아마도 기이하네.
 산봉우리 아름다워 부춘산이 되었거나
 물을 돌아 빙빙 흘러 칠리탄이 되었구나.
 십리길 모래밭은 눈처럼 흰 빛인데

1) 병자년, 1636년

2) 하늘이 숨겨 놓고, 땅이 감추어 둠.

3) 높은 언덕에 오름.

4)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 주작은 남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붉은 봉황의 모습.

5) 용(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용의 모습. 호(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호랑이의 모습.

6) 바람을 가둬두고 햇빛드는 쪽으로 향함.

7) 두어 서까래를 이은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

8)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귀거래 했을 때 고향집에서 맞아주던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9) 후한 광무제 때 엄광이 낚시하며 숨어 살던 곳

10) 부춘산에 흐르는 긴 여울



이 湖山形勝(호산형승)은 건술되 녀야 업너
 巢許(소허)¹⁾도 아닌 몸애 어너 絶義(절의) 알리마는
 偶然時來(우연시래)에 이 名區(명구) 임지되어
 靑山流水(청산유수)와 明月淸風(명월청풍)도
 말업시 절로절로
 어즈러운 鷗鷺(구로)와
 數(수)업슨 鹿(록)도 갑업시 절로절로
 沮溺(저익)²⁾ 가던 묵은 밧과
 嚴子陵(엄자릉)³⁾의 臺(대)도 갑업시 절로절로
 山中百物(신중백물)이 다 절로 己物(기물)되니
 子陵(자릉)이 돌이요 沮溺(저익)이 서히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怪異(기이)코야
 入山當年(입산당년)에 隱君子(은군자) 되얏는가
 千古芳名(천고방명)을 이 혼 몸애 傳(전)토코야
 人間(인간)의 일홈이 人力(인력)으로 일월소나
 山川(산천)이 靈異(영이)하야 도아닌가 너기로라
 中心(중심)이 瑩然(형연)하야 世廬(세려) 절로 그쳐디니
 光風霽月(광풍제월)⁴⁾이 腔子裏(강자리)⁵⁾에 품었는듯
 浩然眞趣(호연진취) 날로 새롭호노왜라
 飛禽走獸(비금주수)⁶⁾는 六畜(육축)⁷⁾이 되얏거늘
 달 알이 괴기낙고 구름 속의 밧을 가라
 먹고 굶나마도 그칠 적은 업노왜라
 無盡(무진)한 江山(강산)과 許多(허다)한 閑田(한전)은
 分給子孫(분급자손) 하려이와
 明月淸風(명월청풍)은 논호류기 어려울식
 才與 不才(재여부재)에
 養志(양지)호는 아들 혼아
 太白(태백) 淵明(연명) 證筆(증필)⁸⁾에
 永永 別給(영영별급) 하렷로라
 내의 이 말이 迂濶(우활)호는 듯 호것마는
 爲子 孫計(위자 손계)는 다만인가 너기로다
 또 어린 이 몸은 仁者(인자)도 아니요
 智者(지자)도 아니로되
 山水(산수)애 癖(벽)이러 늘글수록 더욱호니
 기 貴(귀)호는 三公(삼공)⁹⁾과 이 江山(강산)을 밧글소나

이 호수와 산의 빼어남을 어디에 견주겠나.
 소부 허유 아닌 내가 어이 절의 알 리마는
 우연히 때가 와서 이름난 이곳 임자 되어
 푸른 산, 흐르는 물, 밝은 달, 맑은 바람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럽게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수 많은 사슴들도 값없이 절로절로
 장저와 걸닉이 감매던 묵은 밧과
 엄자릉이 낚시하던 낚시터도 절로절로
 산중의 모든 경치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릉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기이하여
 올해 산에 들었는데 숨은 군자 되었는데.
 아름다운 옛 이름이 이 한 몸에 전했구나.
 인간의 이 이름을 인력으로 이룰 소냐.
 산천이 영험하여 도왔는 줄 여기노라.
 마음속이 환해지며 세상 근심 그쳤으니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마음속에 품었는 듯
 넓고도 참된 멋은 나날이 새로워라.
 날짐승 길짐승은 가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서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밧을 갈아
 먹고 나서 안 남지도 그만두지 않으리라.
 다함없는 강산과 널려있는 묵은 밧은
 자손에게 나누어 물려 주려니와
 밝은 달 맑은 바람 나눠주기 어려우니
 재주가 있던지 재주가 없던지
 부모 뜻 받들어 섬기는 아들 하나
 이태백 도연명의 이름난 글귀에다
 길이길이 따로 떼어 나누어 주리로다.
 이러한 나의 말이 어리석다 하겠지만
 자손 위한 계책에는 다만 이 뿐이라.
 어리석은 이 몸은 어진 이도 아니요,
 슬기롭지도 아니하니
 자연을 좋아함이 늙을수록 더해지니
 저 귀한 삼공과 이 강산을 바꾸겠나.

1) 소부와 허유
 2) 춘추시대 은자인 장저와 걸닉
 3) 엄광
 4) 비 온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
 5) 마음속
 6)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 다니는 짐승들
 7)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 소, 말, 양, 돼지, 개, 닭.
 8)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증인과 이것을 직접 쓴 사람.
 9) 삼정승



어리 미친 이 말을 우우리도 하렷마는
 아프리 우어도 나는 도허 너기노라
 흐믈며 明時(명시)에 브린 몸이
 홀울 닐이 아조업서
 世間 名利(세간 명리)란 쓴 구름 본덧호고
 無思 無慮(무사 무려)호야 物外心(물외심)만 품고 이서
 이니 生涯(생애)을 山水間(산수간)의 붙두고
 春日(춘일)이 채 긴 제 낙딴를 비기쥐고
 葛巾 布衣(갈건 포의)로 釣臺(조대)에 건너오니
 山雨(산우)는 잠깐 개고 太陽(태양)이 쬼오논디
 밀근 바람 더디오니 鏡面(경면)이 더욱 발다
 김흔 돌이 다 보이니 궤기 數(수)를 알리로다
 궤기도 나치 이거 놀닐 줄 모르거든
 차마 엇디 낙글넌고
 罷釣徘徊(차조 배회)¹⁾호며 波心(파심)을 구어보니
 雲影 天光(운연 천광)은 얼희여 줌겨논디
 魚躍于淵(어약우연)²⁾을 구름 우히 보아고야
 하 문득 驚恠(경괴)호야 俯察 仰觀(부찰 양관)³⁾호니
 上下天(상하천)이 宛然(완연)호다
 一陣 東風(일진 동풍)에
 괴엇진 漁笛(어적)이 놓히 부러 보넌던고
 江天(강천)이 寥寂(요적)호디 반가와도 들리누다
 臨風 倚杖(임풍 의장)호야
 左右(좌우)로 도라보니
 臺中淸景(대중청경)이 아마도 蕭灑(소쇄)코야
 물도 하늘갓고 하늘도 물갓호니
 碧水長天(벽수장천)은 혼빚티 되얏거든
 물가에 白鷗(백구)는 오논듯 가논듯
 그칠 줄을 모르누다
 巖畔 山花(암반 산화)는 錦繡屏(금수병)이 되야 잇고
 澗邊 垂楊(간변 수양)은 草綠帳(초록장)이 되야거든
 良辰 佳景(양진 가경)을 내 혼자 거느리고
 正值 花時(정치 회시)⁴⁾를 虛度치 밀나 너겨
 아희 불너 하는 말습이
 深山 窮谷(심산 궁곡)에 海錯(해착)⁵⁾이야 보로소나
 살진 고사리 香氣(향기)호 當歸草(당귀초)를
 豬脯 鹿脯(저포 녹포)⁶⁾ 相間(상간)호야

어리석은 이 말을 비웃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하물며 평안한 세상에서 버려진 몸
 할 일이 아주 없어
 세상의 명예 이익 뜬 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만을 생각하니
 이내 생애를 산수 간에 붙여 두고
 봄날이 채 길 제 낚싯대를 비껴 쥐고
 갈건 쓰고 베옷입고 낚시터로 건너오니
 산에 온 비 잠깐 개어 햇볕이 뜨거운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물결이 거울이라.
 깊은 돌도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 리로다.
 고기도 낚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이 낚을런가.
 이리저리 거닐면서 물결을 굽어보니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어리어 잠겼는데
 물고기가 뛰는 모양 구름 위에 보이기에.
 문득 놀랍고 괴상하여 굽어보고 살펴보니
 위아래 하늘이 모두 다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다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 보내는가.
 강과 하늘 고요하니 반갑게도 들리누나.
 바람을 맞으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낚시터의 좋은 경치 너무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 큰 하늘은 한 빛이 되었거늘
 물가의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누나.
 바위 위에 핀 산꽃은 수놓은 비단 병풍이요,
 여울 가 버들가지 초록 장막 되었거늘
 좋은 시절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바로 꽃이 한창일 때 헛되이 안 보내려
 아이 불러 하는 말이
 깊고 깊은 산골에서 해산물을 맛보겠나.
 살찐 고사리에 향기 나는 당귀풀을
 저포 녹포 사이애다 쟁여 두었다가

1) 낚시를 파하고 이리저리 거닐음.

2) 물고기들이 못에서 뛰어 놀음.

3) 굽어 살피고 우러러 쳐다 봄.

4) 바로 꽃이 한창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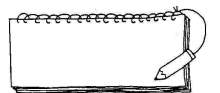
5) 해산물들

6) 말린 돼지고기, 사슴고기



크나큰 細柳筍(세유사)애 洽足(흡족)히 다마두고
 鮓魚膾(부어회) 初味(초미)에
 訥魚(눌어) 生雉(생치) 서거 구어
 빗빳치 드리거든
 瓦樽(와준)에 白酒(백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흔 잔 쏘 흔 잔 醉(취)토록 먹은 後(후)에
 桃花(도화)는 紅雨(홍우)되야 醉面(취면)에 썰리느니
 苔磯(태기) 너븐 돌애 눕히 베고 누어시니
 無懷氏(무회씨) 적 사름인가
 葛天氏(갈천씨) 썩 百姓(백성)¹⁾인가
 羲皇盛時(희황 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이 힘이 뉘 힘고 聖恩(성은)이 아니신가
 江湖(강호)애 물너신들 憂君一念(우군일념)이야
 어닉 刻(각)애 이즐느고
 時時(시시)로 머리 드러 北辰(부진)²⁾을 바라보고
 남 모르는 눈물을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
 一生(일생)애 품은 뜻을 비웁느다 하느님아
 山平 海渴(산평 해갈)토록
 우리 聖主(성주) 萬歲(만세)소서
 熙皐 世界(희호 세계)³⁾에
 三代 日月(삼대 일월)⁴⁾ 빗취소서
 於千萬年(어천만년)애 兵革(병혁)을 쉬우소서
 耕田 鑿井(경적 착정)⁵⁾애 擊壤歌(격양가)⁶⁾를 불리소서
 이 몸은 이 江山風月(강산풍월)애 늘글 주를 모르로라

큰 버들 바구니에 흡족하게 담아 두고
 붕어로 회를 쳐서 첫 맛을 즐긴 뒤에
 누치와 꿩고기를 섞어서 구웠다가
 가지가지 들이거든
 흙그릇에 막걸리를 박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마신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되어 취한 얼굴에 흠어지고
 이끼 낀 넓은 바위 높이 베고 누웠으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복희씨 때 태평성대 다시 보면 여기로다.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로 물러난들 임금님 걱정이야
 어느 때에 그치겠나.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아래 뿌리도다.
 일생애 품은 뜻을 비웁니다, 하느님아.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르도록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소서.
 백성들이 화락하니
 삼대의 해와 달을 비추어 주소서.
 천년만년 전쟁을 쉬게 하소서.
 우물 파고 밭을 갈며 격양가를 불게 하소서.
 이 몸이 강산풍월에서 늙을 줄을 모르나이다.



- 1) 무회씨, 갈회씨 둘 다 중국 고대의 제왕. 무회씨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이 사욕이 없었다고 하며, 가회씨는 교화를 퍼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 태평하였다고 함. 무회씨 갈회씨의 백성을 욕심없고 순박한 사람을 가리킴.
- 2) 북극성, 여기서는 임금.
- 3) 백성들이 화락하게 살아가는 세계
- 4) 중국 하, 은, 주 세 나라 시대의 해와 달
- 5) 밭을 갈고 우물을 팠.
- 6)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제 14 강

屏山六曲(병산육곡)

權矩(권구)

[제1곡]

富貴(부귀)를 求(구)치 말고 貧賤(빈천)이라 厭(엄)치 말아
人生百年(인생백년)이 閑暇(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白鷗(백구)야 날지 말아 너와 忘機(망기)하오리라.

부귀를 구하지 말고 가난하다 싫어 마라.
인생 백년 한가하게 살자하니 내 마음이라.
백구야, 날아가지 마라, 너와 세상 잊으리라.

[제2곡]

千尋絕壁(천심절벽) 섰난 아래 一帶長江(일대장강) 흘러간다
白鷗(백구)로 버들 삼아 漁釣生涯(어조생애) 늘거가니
두어라 世間 消息(세간소식) 나난 몰나 하노라.

높은 절벽 섰는 아래 길게 강물 흘러간다.
백구를 버들 삼아 어부 생애로 늙어 가니
두어라, 세상 소식이야, 나는 몰라라 하노라.

[제3곡]

보리밥 과 生菜(생채)를 量(양) 맛차 먹은 後(후)에
茅齋(모재)를 다시 쏘고 北窓下(북창하)에 누웠시니
눈 압헤 太空 浮雲(태공부운)이 오락가락 하노다.

보리밥 파생채를 알맞게 먹은 후에
초가집을 다시 쏘고 북창 아래 누웠더니
눈앞의 넓은 하늘 뜬구름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제4곡]

空山裡(공산리)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杜鵑(두견)아
落花 狂風(낙화광풍)에 어나 가지 의지하리
百鳥(백조)야 恨(한)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빈 산 속에 달을 보고 홀로 우는 두견새야.
꽃잎 떨어는 바람 부니 어느 가지 의지하랴.
뭇새야, 한탄하지 마라, 나 또한 서럽노라.

[제5곡]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野林 寒烟(야림한연)에 날은 조차 저물거날
어엿블사 翩翩 孤鳳(편편봉황)이 갈 바 업서 하노다.

저 까마귀 울지 마라, 이 까마귀 좃지 마라.
안개에 묻힌 숲에 해마져 저물거늘
가엾구나, 외로이 나는 봉황 갈 곳 몰라 하는구나.

[제6곡]

西山(서산)에 해 저 간다 고기 빅 썰단 말가
竹竿(죽간)을 둘러 뒀고 十里 長沙(십리장사) 내려 가니
烟花 數三漁村(연화 삼수어촌)이 武陵(무릉)인가 하노라.

서산에 해가 진다, 고깃배가 떠 있는가.
대 낚싯대 둘러메고 십 리 모래밭 내려가니
어촌에 안개꽃 오르니 무릉인가 하노라.



제 15 강

四時詞(사시사)

許蘭雪軒(허난설헌)

春(춘)

院落深沈杏花雨(원락심침행화우)
 流鶯啼在辛夷塢(류앵제재신이오)
 流蘇羅幕襲春寒(류소라막습춘한)
 博山輕飄香一縷(박산경표향일루)
 美人睡罷理新粧(미인수파리신장)
 香羅寶帶蟠鴛鴦(향라보대반원앙)
 斜捲重簾帖翡翠(사권중렴첩비취)
 懶把銀箏彈鳳凰(늠파은쟁탄봉황)
 金勒雕鞍去何處(금륜조안거하처)
 多情鸚鵡當窓語(다정앵무당창어)
 草粘戲蝶庭畔迷(초점희접정반미)
 花罨遊絲闌外舞(화견유사란외무)
 誰家池館咽笙歌(수가지관열생가)
 月照美酒金叵羅(월조미주금파라)
 愁人獨夜不成寐(수인독야불성매)
 曉起鮫綃紅淚多(효기교초홍루다)

그윽한 프락에서 살구꽃 피니 비 내리고
 목련 핀 언덕에선 피꼬리가 지저귀네.
 수실 늘인 휘장 안에 봄기운 차가운데
 박산향로¹⁾에 한 줄기 향 내음이 오르누나.
 미인은 잠을 깨어 다시 곱게 단장하며
 원앙새 수를 놓은 비단 띠를 허리에 띠네.
 겹발은 걷어 두고 비취 이불 개어 놓고
 시름없이 은 거문고로 봉황곡²⁾을 타는구나.
 금 굴레 안장 없고 임은 어디 가셨을까.
 정다운 앵무새는 창가에서 속삭이는데
 풀숲에서 놀던 나비 프락으로 날아간 뒤
 난간 밖 아지랑이 핀 꽃에서 춤을 춘다.
 뉘 집인가, 연못가에 피리소리 구성지니
 밝은 달은 금 술잔에 아름다운 떠 있구나.
 시름 많은 여인네는 밤새 홀로 잠 못 이루어
 새벽이면 명주 수건에 붉은 눈물 가득하여라.

夏(하)

槐陰滿地花陰薄(괴음만지화음박)
 玉簫銀床敞珠閣(옥점은상창주각)
 白苧衣裳汗凝珠(백저의상한응주)
 呼風羅扇搖羅幕(호풍라선요라막)
 瑤階開盡石榴花(요계개진석류화)
 日轉華簷簾影斜(일전화첨렴영사)
 雕梁畫永燕引鷗(조량주영연인추)
 藥欄無人蜂報衙(약란무인봉보아)
 刺繡慵來午眠重(자수용래오면중)

느티나무 그늘 아래 꽃 그림자 어두운데
 대자리에 앉았보니 고운 누각 시원하네.
 새하얀 모시 적삼 땀방울이 구슬 같고
 비단 부채 부채질에 비단 휘장 흔들리네.
 돌층계의 석류꽃은 피었다가 다시 지고
 햇살은 처마 옮겨 발 그림자 비겼구나.
 들보에선 낮이 길어 제비는 새끼와 놀고
 인적 없는 약초밭엔 벌들만이 뽕뽕대네.
 수를 놓다 나른하여 그만 잠시 졸았던지

1) 신선을 본떠 만든 향로

2) 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노래



錦茵敲落釵頭鳳(금인고락차두봉)
 額上鵝黃膩睡痕(액상아황이수흔)
 流鶯喚起江南夢(류앵환기강남몽)
 南塘女伴木蘭舟(남당여반목란주)
 采采荷花歸渡頭(채채하화귀도두)
 輕橈齊唱采菱曲(경노제창채릉곡)
 驚起波間雙白鷗(경기파간쌍백구)

꽃방석에 누웠더니 봉황비녀 떨어졌네.
 이마 위에 노란 거위 낮잠 잔 자국이고
 피꼬리 울음소리 강남 꿈을 깨웠어라.
 남쪽 연못 아가씨들 목란배에 몸을 싣고
 한 아름 연꽃 꺾어 나룻가로 돌아오네.
 천천히 노를 저어 채릉곡¹⁾을 불렀더니
 물결에서 흰 갈매기 한 쌍 놀라 날아가네.

秋(추)

紗幬寒逼殘宵永(사주한뵈잔소영)
 露下虛庭玉屏冷(로하허정옥병냉)
 池荷粉褪夜有香(지하분퇴야유향)
 井梧葉下秋無影(정오엽하추무영)
 丁東玉漏響西風(정동옥루향서풍)
 簾外霜多啼夕虫(렴외상다제석충)
 金刀剪下機中素(금도전하기중소)
 玉關夢斷羅幕空(옥관몽단라막공)
 裁作衣裳寄遠客(재작의상기원객)
 悄悄蘭燈明暗壁(초초란등명암벽)
 含啼寫得一封書(함제사득일봉서)
 驛使明朝發南陌(역사명조발남맥)
 裁封已就步中庭(재봉이취보중정)
 耿耿銀河明曉星(경경은하명효성)
 寒衾轉轉不成寐(한금전전불성매)
 落月多情窺畫屏(락월다정규화병)

새벽은 멀었지만 비단 휘장에 찬바람 드니
 빈 뜨락에 이슬 내려 병풍이 차가워라.
 연꽃은 시들어도 밤새 향기 퍼지는데
 우물가 오동잎 지니 그림자가 사라졌네.
 물시계 소리만 똑딱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 밖에는 서리 내려 밤벌레만 구슬프네.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옥문관²⁾ 임의 꿈 깨니 비단 휘장 적막하여라
 먼 길에 부치려고 임의 옷을 지어내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히누나.
 눈물을 머금으며 써두었던 편지 한 장
 내일 아침 남쪽 가는 역인에게 전하려네.
 옷과 편지 챙겨 놓고 뜨락에서 서성이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았어라.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니
 지는 달이 다정하게 병풍 안을 엿보는가.

冬(동)

銅壺滴漏寒宵永(동곤적루한소영)
 月照紗幬錦衾冷(월조사위금금랭)
 宮鴉驚散轆轤聲(궁아경산로록성)
 曉色侵樓窓有影(효색침루창유영)
 簾前侍婢瀉金瓶(렴전시비사금병)
 玉盆手澣臙脂香(옥분수삼연지향)

구리병³⁾ 물소리에 추운 밤은 깊어 가고
 휘장에 달 비추어도 금침은 차가워라.
 궁궐의 까마귀는 두레박에 놀라 흩어지고
 새벽 먼동에 다락 창가 그림자가 어른거리네.
 발 앞에다 시비가 금병에 물 쏟으니
 찬물에 손 담기 어려워도 분내는 향기롭네.

1)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악부체의 노래.

2) 옥관(玉關). 만리장성에서 서역으로 나가는 관문으로, 사신이나 군사들이 한 번 나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다고 함.

3) 구리병으로 만든 물시계.



春山描就手屢呵(춘산묘취수루가)
 鸚鵡金籠嫌曉霜(앵무금룡협효상)
 南隣女伴笑相語(남린여반소상어)
 玉容半爲相思痕(옥용반위상사흔)
 金爐獸炭暖鳳笙(금로수탄난봉생)
 帳底羔兒薦春酒(장저고아천춘주)
 憑闌忽憶寒北人(빙란홀억한북인)
 鐵馬金戈青海濱(철마금과청해빈)
 驚沙吹雪黑貂弊(경사취설흑초폐)
 應念香閨淚滿巾(응념향규루만건)

시린 손 호호 불며 눈썹을 그리노니
 새장의 앵무새는 새벽 서리 싫어하네.
 남쪽의 벗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임 생각에 고운 얼굴 반쯤이나 여위었군.
 숯불 지핀 화로 위로 피리소리 울려나고
 장막 밑의 고아주¹⁾를 봄술²⁾로 바치리라.
 난간에 기대어 변방의 임 문득 그리니
 말 타고 창 들며 청해³⁾ 물가 달리겠지.
 몰아치는 눈보라에 가죽옷은 닳았을 테고
 향기로운 아내 방을 그리워해 수건 적시리라.

1) 염소 새끼를 넣어 빚은 술.

2) 거울에 빚어 봄에 익히는 술.

3) 중국 청해성의 호수로 변방이었음.



제 16 강

星성山山別별곡곡 山在昌平

정 철(鄭 澈)

엇던 디날손이 星성山山¹⁾의 머물며서
 棲서霞하堂당²⁾ 息식影영亭亭³⁾ 主주人인아 내말듯소
 人인生生 世세間간의 도흔일 하건마는
 엇디 혼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너겨
 적寞막 山山中동의 들고아니 나시논고
 송根근을 다시썰고 竹죽床상의 자리보와
 저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보니
 天턴邊변의 썬구름 瑞서石석⁴⁾을 집을사마
 나는듯 드는양이 主주人인과 엇더혼고
 滄창溪계⁵⁾ 흰물결이 亭亭子子⁶⁾알피 둘러시니
 天턴孫손⁶⁾ 雲운錦錦을 닦아서 버혀내여
 닛는듯 퍼티는듯 현스토 현스홀사
 山山中동의 冊척曆曆업서 四스時시를 모르더니
 눈아래 해틴경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仙間간이라
 梅미窓창 아적벗히 香향氣기에 즈음씨니
 山山翁翁⁷⁾의 히을일이 곳업도 아니흐다
 울밋 陽陽地地편의 외씨를 세허두고
 믹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내니
 靑靑門門 故고事스⁸⁾를 이제도 잇다홀다
 芒망鞋혀를 비야신고 竹죽杖杖을 훑더디니
 桃도花화편 시내길히 芳芳草초洲洲⁹⁾에 니어세라
 닷봇근 明明鏡鏡中中 절로그린 石石屏屏 風風
 그림자 벗을삼고 새와로 흠씩가니
 桃도源源은 여기로다 武武陵릉은 어디메오
 南남風풍이 건듯부러 綠綠陰陰을 헤터내니

어떤 길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 많지마는
 어찌하여 이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서 들고 아니 나오시나.
 솔뿌리를 다시 썰고 대 평상에 자리 보아
 잠시 올라 앉아 예 어떤가 다시 보니
 하늘가의 뜬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모습 주인과 어떠한가.
 창계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돌렸으니
 은하수 직녀 비단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요란도 요란하다.
 산중에 책력 없어 네 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펼친 경치 계절마다 대단하여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계로다.
 창을 여니 아침별에 매화 향기로 잠을 깨니
 산옹이 해야 할 일 아주 없지 아니하다.
 울 밑의 양지쪽에 오이씨 뿌려 두고
 매거니 돋우거니 비 온 김에 손질하니
 청문의 고사가 여기에도 있다하리.
 짚신을 매어 신고 대지팡이 짚었으니
 복숭아꽃 시내 길이 방초주로 이어졌네.
 맑게 닦인 거울 속 절로 그린 돌 병풍
 그림자 벗을 삼아 새와 함께 걸어가니
 도원이 여기로다, 무릉은 어디인가.
 남풍이 잠깐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節절아는 궤궤리는 어디로서 오듯던고

매를 아는 궤궤리는 어디에서 날아왔다.

- 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소재한 산. “별피”.
- 2) 서하 김성원(棲霞 金成遠)이 지은 정자의 이름.
- 3) 김성원이 자신의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을 위해 지어 준 정자.
- 4) 광주 무등산 마루에 있는 서석대(瑞石臺)로 ‘상서로운 돌’을 뜻함.
- 5) 식영정 앞을 흐르는 시내.
- 6) ‘천손’은 직녀성을, ‘운금’은 구름같은 비단을 말함. ‘천손운금’은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 곧 은하수를 말함.
- 7) 산촌에 사는 늙은이로 김성원을 가리킴.
- 8) 한나라 장안성의 동남문인 ‘청문’에 소평(邵平)이라는 이가 오이를 심어 이를 ‘청문과(靑門瓜)라 하였다는 고사.
- 9) 아름다운 풀이 우거진 물속의 섬.



義熙皇 薨¹⁾ 버개¹⁾우히 풋즘을 얼끗씨니
 空空中²⁾ 저즌欄³⁾난干간 물우히 썬잇고야
 麻⁴⁾衣의를 니미츠고 葛⁵⁾巾을 기우쓰고
 구부락 비기락 보느거시 고기로다
 흐름 밤 비씨운의 紅⁶⁾홍白⁷⁾蓮蓮이 섰거피니
 襜⁸⁾의 업시서 萬⁹⁾만山¹⁰⁾산이 향기로다
 濂¹¹⁾溪계¹²⁾를 마조보와 太¹³⁾태極¹⁴⁾극을 못즘는듯
 太¹⁵⁾태乙을 眞¹⁶⁾진人¹⁷⁾인¹⁸⁾이 玉¹⁹⁾옥字²⁰⁾즈를 헤헛는듯
 鷗²¹⁾노鷺²²⁾즈巖²³⁾암²⁴⁾ 바라보며 紫²⁵⁾자微²⁶⁾미灘²⁷⁾탄²⁸⁾ 거터두고
 長²⁹⁾당松³⁰⁾송을 遮³¹⁾차日³²⁾일사³³⁾마 石³⁴⁾석逕³⁵⁾경의 안자흐니
 人³⁶⁾人間³⁷⁾간 六³⁸⁾육月³⁹⁾월이 여기논 三⁴⁰⁾삼秋⁴¹⁾추로다
 淸⁴²⁾淸江⁴³⁾강의 썬느올히 白⁴⁴⁾백沙⁴⁵⁾사의 올마안자
 白⁴⁶⁾백鷗⁴⁷⁾구를 벗을삼고 줌길줄 모르느니
 無⁴⁸⁾무心⁴⁹⁾심코 閑⁵⁰⁾한暇⁵¹⁾가흐미 主⁵²⁾주人⁵³⁾인과 엇더흐고
 梧⁵⁴⁾오桐⁵⁵⁾동 서리들이 四⁵⁶⁾스更⁵⁷⁾경의 도다오니
 千⁵⁸⁾천巖⁵⁹⁾암 萬⁶⁰⁾만壑⁶¹⁾학이 낮인들 그러할가
 湖⁶²⁾호洲⁶³⁾쥬 水⁶⁴⁾슈晶⁶⁵⁾정宮⁶⁶⁾궁⁶⁷⁾을 뒤라서 옮겨온고

銀⁶⁸⁾은河⁶⁹⁾하를 건너뛰어 廣⁷⁰⁾광寒⁷¹⁾한殿⁷²⁾던⁷³⁾의 올랐는듯
 썩마즌 늘근술란 釣⁷⁴⁾조臺⁷⁵⁾디에 세여두고
 그아래 비를썩워 갈대로 더져두니
 紅⁷⁶⁾홍蓼⁷⁷⁾노花⁷⁸⁾화⁷⁹⁾ 白⁸⁰⁾백蘋⁸¹⁾빈洲⁸²⁾쥬⁸³⁾ 어느스이 디나관디
 環⁸⁴⁾환碧⁸⁵⁾벽堂⁸⁶⁾당⁸⁷⁾ 龍⁸⁸⁾농의소히⁸⁹⁾ 비얹피 다하느니
 淸⁹⁰⁾淸江⁹¹⁾강 綠⁹²⁾녹草⁹³⁾초邊⁹⁴⁾변의 쇼머기논 아히들이
 어위를 계워 短⁹⁵⁾단笛⁹⁶⁾덕을 빗기부니
 물아래 줌긴龍⁹⁷⁾농이 줌씨야 니러날듯
 닥씨예 나온鶴⁹⁸⁾학이 제기슬 브리고
 半⁹⁹⁾반空¹⁰⁰⁾공의 소소썰듯
 蘇¹⁰¹⁾소仙¹⁰²⁾선 赤¹⁰³⁾적壁¹⁰⁴⁾벽¹⁰⁵⁾은 秋¹⁰⁶⁾추七¹⁰⁷⁾칠月¹⁰⁸⁾월이 도타호디

희황 베개 위의 풋잡을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 걸쳐 입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굽히고 기대어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비 기운에 홍백련이 섞여 피니
 바람기 없어서 온 산이 향기롭다.
 염계를 마주 보고 태극을 물어보듯
 태을 진인이 옥자를 헤쳐는 듯
 노자암 바라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큰 소나무 차일삼아 돌길에 앉아 보니
 세상은 유월이어도 여기는 삼추로다.
 맑은 강을 나는 오리 백사장에 옮겨 앉아
 백구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느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
 오동나무 서리 맞고 사경에 달이 뜨니
 많은 바위 골짜기가 낮인들 그러할까
 호주의 수정궁을 그 누가 옮겨왔다.

은하수 건너 뛰어 광한전에 올라간 듯
 썩 맞은 늙은 술은 남시터에 세워 두고
 그 아래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던져두니
 홍료화와 백빈주는 어느 사이 지났는지
 환벽당 용 연못이 배 앞에 닿았어라.
 맑은 강 푸른 풀밭 소 먹이는 아이들이
 흥취에 겨워서 피리를 빗겨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벌리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의 적벽은 가을 칠월 좋다는데

- 1) 중국 황제 '복희씨(伏羲氏)', '희황 베개'는 복희씨 때의 은일지사인 '희황상인(義皇上人)'을 수놓은 베개로 이들을 베개에 수놓아 잠을 자면 편하다 하여 생겨난 베개임.
- 2) 송나라의 도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
- 3) 염계 주돈이가 펴냈다는 천리(天理)에 관한 이론을 말함.
- 4) 천지의 도를 터득한 신선.
- 5)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 황제(皇帝)가 금쪽예다 푸른 옥으로 글씨를 박았다는 비결서가 '금간옥자(金簡玉字)', 우왕(禹王)이 잠을 깨어 황제지악(皇帝之岳)에서 돌을 헤쳐 그 속에서 황제가 남긴 비결서인 '금간옥자'를 얻었다고 함.
- 6) 식영정 아래 창계(蒼溪)에 있는 바위 이름.
- 7) '자미(紫微)'는 배롱나무의 한자식 이름. '자미탄'은 식영정 아래를 흐르는 여울.
- 8) '호주'는 중국 서호(西湖)에 있는 섬. '수정궁'은 오나라 왕 합려(閻閭)가 지은 부용원의 궁전 이름.
- 9) 달 속의 향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 10) 붉은 여뀌꽃.
- 11) 흰 마름꽃이 피어 있는 물 속의 작은 섬.
- 12) 성산 맞은편 언덕에 위치한 정자.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가 깃들여 지내던 곳.
- 13) 성산의 승지(勝地) 가운데 하나인 용추(龍湫).



八 팔月월 十 십五 오夜야를 모다엿디 과 허느고
 纖 섬雲운이 四 스捲 권흐고 물결이 채잔적의
 하늘의 도든들이 솔우히 올라시니
 잡다가 빠딘줄이 謫 덕仙 선¹⁾이 현스홀샤
 空 공山산의 싸힌닙홀 朔 삭風풍이 거두부러
 세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天 텨公공이 호식로와 玉 옥으로 꽃출지어
 萬 만樹슈 千 천林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압여홀 ㄱ리어러 獨 독木목橋교 빗것느디
 막대멘 늘근중이 어늬덜로 간닷말고
 山 산翁옹의 이富 부貴귀를 늬드려 현스마오
 瓊 경瑤요窟굴²⁾ 隱 은世 세계계를 츠줄이 이실세라

山中산동의 벗이업서 黃 황卷권³⁾를 빠하두고
 萬 만古고 人 인물들을 거스리 헤여흐니
 聖 성賢현은 ㄱ니와 豪 호傑걸도 하도할샤
 하늘 삼기실제 ㄱ無 무心심 홀가마는
 엿디홀 時 시運운이 일락배락 흐얏느고
 모를일도 하거니와 애달음도 그지업다
 箕箕山산⁴⁾의 늘근고불⁵⁾ 귀는엿디 싯뚫던고
 一 일瓢瓢를 썰틴後 후⁶⁾의 조장⁷⁾이 더욱놉다
 人 인心심이 ㄱ곳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 세事스는 구름이라 머호도 머흘시고
 엿그제 비즌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ㄱ징 거후로니
 ㄱ음의 ㄱ친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언저 風 풍入 입松송⁸⁾ 이야고야
 손인동 主 주人인인동 다니저 브려세라
 長 당空공의 썰느鶴 학이 이골의 眞 진仙 선이라
 瑤 요臺터⁹⁾ 月 월下하의 형혀아니 만나산가
 손이서 主 주손이서 닐오디 그디권가 흐노라

팔월 보름을 모두 어찌 내세우나.
 비단 구름 다 걷히고 물결이 잔잔할 제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올랐으니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선이 요란하네.
 빈산에 쌓인 잎을 겨울 바람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조물주는 호사하여 옥으로 꽃을 지어
 수많은 나무숲을 아름답게 꾸몄구나.
 앞 여울 가려 얼어 외나무다리 걸쳤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 늙은이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마오.
 아름다운 숨은 경치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누런 책을 쌓아 두고
 만고의 인물들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은 물론이요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이 만드실 때 어찌 무심 할까마는
 어찌 하여 운수 일고 기울고 하였느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음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싯었던가.
 표주박을 떨친 후에 지조가 더욱 높다.
 사람 마음 얼굴 같아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빗은 술이 얼마나 익었는가.
 잡거니 밀거니 싫도록 기울이니
 마음의 맺힌 시름 적으나마 풀어진다.
 거문고 줄에 얹어 풍입송을 연주하니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 버렸구나.
 창공의 떠 있는 학 이 고을의 신선이라.
 휘영청 달빛 아래 형여 아니 만나볼까.
 손님이 주인에게 이끄기를 그대인가 하노라.

14) ‘소선’은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은 소동파가 지은 유명한 글 ‘적벽부(赤壁賦)’를 일컫음.

1) 이백을 뜻함. 이백의 벗 하지장(賀知章)이 “이백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귀양 온 선인(仙人)”이라 한 데서 나온 말.

2) 신선의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구슬로 된 굴. 여기서는 성산을 가리킴.

3) 좀먹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황벽나무 잎으로 종이를 물들인 책.

4) 옛날 요 임금 때 허유(許由)와 소부(巢父)가 세간사와 담을 쌓고 숨어 살았다는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산.

5) 나이가 많은 사람. 명사고불(名士古佛)의 준말. 여기에서는 요임금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 하자 더러운 말을 들었다 하여 귀를 씻었다는 허유(許由)를 가리킴.

6) 소리가 난다고 핑계하고 표주박을 던져버린 허유(許由)의 일화를 말함.

7) 지조행장(志操行狀)의 준말로, 지조 있는 생애를 뜻함.

8) 악곡의 이름.

9) 신선이 산다는 누대.